



# 時計塔

SIGETOP



2018년 4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5권 2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발행인: 韓承信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金靜雅 李善姬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 제35차 컨벤션 안내

2018년 6월 21일(목)~24일 (일) •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 1. 루즈벨트 대통령 생가와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밴더빌트 맨션 방문 (6/22 금요일)

미국 32대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번 당선되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생가와 미국에서 첫번째로 설립된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그리고 운송사업과 철도왕으로 그 시대 최고의 부자 가문이었던 Vanderbilt Mansion을 방문해서 미 국립공원 가이드의 안내로 투어를 하며 미국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에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선착순 50명의 신청만 받습니다.)



**The Home of Franklin D. Roosevelt National Historic Site (NHS)**

"All that is within me cries out to go back to my home on the Hudson River"

This quote captures FDR's connection to Springwood, the estate that he loved & the place he considered home.

The first US Presidential Library was started by FDR here. Visit the Home of FDR and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to learn about the only President elected to four terms.



**Vanderbilt Mansion NHS**, in terms of architecture, interiors, mechanical systems, road systems and landscape, is a remarkably complete example of a gilded-age country place, illustrating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demographic changes that occurred as America industrialized in the years after the Civil War.

### 2. River Vale Country Club: (6/21 목요일, 6/22 금요일)



660 Rivervale Road, River Vale, NJ  
Semi-Private 18 Holes Par 72 ( 6,504 Yards )

1. Voted best place to play by Golf Digest 2008-2009, and by NJ Life Style Magazine 2009
2. Bergen Health & Life Winner 2012, 2013, 2014, 2015

Bergen Magazine Reader's Choice Award를 받은 클럽이며 특히 목요일에는 씨니어 (62+) 가격으로 경비가 저렴하면서도 매우 쾌적한 골프코스입니다.

### 3. KCC 한인동포회관 방문 및 체험 학습 (6/22 금요일)

오전에 방문하여 관장님의 안내로 회관의 역사와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시설을 돌아본 뒤에 수목채색화, 서예 수업과 운동,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각자 원하는대로 미리 선택 신청하여 점심시간 전 후에 체험학습, 운동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KCC 방문일정 안내

	10:00-10:30	KCC 기관 소개 및 투어	
오전	A	10:30-12:30	수목 채색화 한수진 선생님
	B	10:30-11:30	Stretching & Power Line Dance 김지현 선생님
		11:30-12:30	노래교실 이철재 선생님
	12:30 - 1:30	LUNCH	
오후	A	1:30 - 3:30	서예 진인성 선생님
	B	1:30 - 3:30	Salsa Line Dance DONAY 선생님

### 6월 22일 Banquet, 동기 장기자랑

졸업년도가 높은 선배님들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참가조건: 같은 동기팀 이거나 동기 숫자가 적은 경우는 위, 아래 2년까지 포함하여 팀 구성

구 성: 합창, 댄스, Talent show 등

상 금: 소정의 상금이 수여 됩니다. (참가 인원수가 많을수록, 높은 졸업년도 일수록 점수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 청: 동기대표가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snucmaa@yahoo.com)

### 35th MEDICAL CONVENTION PROGRAM

#### 6월 21일 (목요일)

- 9:30pm-3:30pm River Vale Country Club, 660 Rivervale Rd, Rivervale, NJ (친선 골프 - 1st Tee Time 9:30 & every 10 min)
- 3:00pm-5:30pm Registration at Grand Concourse (in front of East Ball Room)
- 4:00pm-5:00pm 2nd Delegate Meeting at Morris Room
- 6:00pm-9:00pm Class Reunion (각 동기별 한국식당)

#### 6월 22일 (금요일)

- 6:30am-8:30am Continental Breakfast at Ball Room A/B
- 7:00am-6:00pm Registration at Grand Concourse (in front of East Ball Room)
- 7:30am-5:30pm Pre-Convention Tour #1 FDR Home, Library and Museum & Vanderbilt Mansion (7:15 로비 집합, 버스타승)
- 9:30am-3:30pm River Vale Country Club, 660 Rivervale Rd, Rivervale, NJ (Golf Tournament - 1st Tee Time 9:30 & every 10 min)
- 9:30am-3:30pm Korean Community Center - 한인 동포회관 체험
- 6:30pm-10:30pm Banquet at Ball Room A/B
- 8:00pm-10:30pm GP meeting at Morris Room

#### 6월 23일 (토요일)

- 6:30am-8:00am Continental Breakfast at Ball Room A/B
- 7:00am-6:00pm Registration at Grand Concourse (in front of East Ball Room)
- 7:50am-12:00pm General Session (CME/non-CME combined) at Ball Room C
- 12:00pm-1:00pm Lunch at Ball Room A/B
- 1:00pm-5:00pm Non-CME Session at East Ball Room
- 1:00pm-5:30pm CME Scientific Session at Ball Room C
- 6:00pm-7:00pm Reception at East Ballroom
- 7:00pm-11:00pm Grand Banquet at Ball Room A/B
- 9:00pm-11:00pm GP meeting at Morris Room

#### 6월 24일 (일요일)

- 6:30am-8:00am Continental Breakfast at Ball Room A/B
- 7:00am-3:00pm Registration at Grand Concourse (in front of East Ball Room)
- 7:55am-12:00pm Non-CME Session at East Ball Room
- 7:55am-12:00pm CME scientific Session at Ball Room C
- 12:00pm-1:00pm Lunch at Ball Room A/B
- 1:00pm-3:00pm CME Scientific Session Room C
- 1:30pm-9:30pm Post Convention Tour - New York City Tour (1:15 로비 집합, 버스타승)

### 6월 23일 Grand Banquet, 듀엣가요제

이번 35회 Annual Medical Convention 중 선후배 동문들간의 화합 증진을 목적으로 듀엣가요제를 개최합니다. 젊은 동문과 선배님이 함께 듀엣을 만들어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참가조건: 동문 두 명이 한 듀엣 팀을 이루어 참가합니다. (선착순 6팀)

참가곡: 노래방 기기에 수록된 곡은 어느 곡이나 가능합니다.

상 금: 우승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참고로 듀엣을 이루는 두 동문의 졸업년도 차이가 클수록 최종 점수에서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듀엣 팀은 참가자의 성명, 졸업 연도, 이메일 연락처, 신청곡을 동문회 사무실 이메일 (snucmaaweb@gmail.com)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2017-2018 제2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8년 4월 7일 3시(동부시간)  
 동부(NY 지역),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Teaneck, NJ  
 이만택(58) 채규철(59) 한기현(63) 이희경(61) 허선행(64) 서운석(68) 주광국(68)  
 서량(69) 강창홍(71) 문대욱(73) 김정아(76) 유영걸(76) 한승신(76) 남명호(81)  
 이선희(81) 이선규(89) 서귀숙(84) 강민중(91) 김현재(07) 백승석 fund manager



서부,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김태웅(63) 이건일(68) 김명원(68)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정균희(72)  
 고용규(73) 전경배(75) 김대중(76) 박일우(77)



Proxy:  
 김택수(63) 추재욱(63) 권정덕(64) 최준희(64) 이명희(66) 최순채(66) 신용계(68)  
 오용호(72) 최광휘(76) 김동훈(77) 백승원(79) 오무현(89) 장세권(01) 송경민(09)

1. 동, 서부 참석 인원 소개 및 Proxy 점검 후 한승신 회장이 제2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지난 2017-2018, 제1차 이사회 회의의 초록에 대하여 강민중 총무가 간략히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 발표한 초록 내용은, 2018년 1월호 시계탑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

2. 주광국(68) 재무의 재무보고 및,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a. Income (02/28/2018년 현재): Transfer (\$226,781.37), Due & Donation, etc (\$41,338.50), Scholarship Management Fund (\$16,961.84)-> Total (\$385,081.71)을 보고.  
 b. Expense (\$99,079.85): Salary (\$19,146.59), Utilities, Phone(\$4,583.47), Office expenses & Supply (\$936.46), Storage (\$1,136.00), Meetings & Travel (\$6,841.70), Members Condolence (\$1,300), Sharing Revenue (\$510), Sigetop Publication & Postage (\$22,867.37), Scholarship (\$28,900.00), IT & Web (\$1,600), Accountant (\$3,000), Charity (\$3,000.00), Taxes (\$5,258.26)의 상세 내역을 보고함.  
 c. Total Current Balance (03/31/2018년 현재: \$287,226.23)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3. 백승석 Fund manager로부터, "Scholarship Fund Management"의 보고 및,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있었음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총 시가 (\$252,790)와 관련된 지난 이십 여년 간의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짐. 1999년에 처음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 연 평균, 약 5.9%의 평균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동일 기간 동안의 S&P 500의 연평균인 4.3%에 비하여 우수한 성적임. 또한 First quarterly payment (08/15/2017): \$5,703가 지급되었고, 최소 10여년 간 이 배당금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4. 서운석(68) 편집위원장의 "Publication Committee Report" 보고 및 이에 대한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a. 제2회 우수 작품상 모집이 현재 활발히 진행중임을 보고함.  
 b. 동문 사모님들로부터의 더 많은 원고 투고를 환영한다는 말씀과 또한 동기들의 행사 소식과 각 지역 동창회 소식을 편집위원회에 활발히 알려 주기를 당부함.  
 c. 지난 12년간 출판된 시계탑의 내용이 모두다 동창회 웹사이트 (snucmaaus.org)에 실려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덧붙여짐.

5. Charity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서면 보고가 있었음.  
 a. Charity Committee의 새 구성원으로 박계영(90), 홍선경(64), 최광휘(76)동문이 새롭게 유입되어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활발히 사회 봉사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는 최영자 위원장님의 포부 발표가 이루어짐.  
 b. 현재 본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지원 대상에 잘 들어맞는 비영리 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함. 또한 "fund raising activity"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활동 내용을 모색하고 있음.

6. 이선희(81) 위원장의 Scholarship Committee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a. 최종적으로 선정된 서울의대 미주 동문회 그린 프로젝트 장학생 5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간략히 보고됨 - 이들 선정자의 명단은, 이승한, 민훈, 이지영, 이예지, 조승현 등임. 또한 김태웅(63) 장학생 2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간략히 보고됨 - 이들 선정자는 정동재 및 권예라 학생임.  
 b. 지난 해(2017년) 7월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미주 병원 연수 참가 서울의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를 올해에는 지역별 미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선배님들과의 만남 형식으로 바꾸어 진행하기로 함 - 원래, 35차 학술 대회 기간 중에 미주 병원 연수 참가 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으나, 본교 학사 일정상 실현이 어려움이 확인됨.  
 c. 2019년 부터 모교 학사 일정의 변화에 따라 해외 병원 연수 참가 시기가 매해 1월로 바뀌에 따라, 그에 맞추어 2019년 1월에 "미주 병원 연수 참가 서울의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그 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Task force team"이 구성중에 있음.  
 d. 장학생 선정 기준에 대하여 동문회 내에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선희 위원장께서 제안함. 이와 관련하여 문대욱(73) 동문께서, 본 미주동문회의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 있음. 즉, 미주 지역 진출의 관심이 높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장학생으로 선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7. Nominating Committee (위원장: 이건일 전임 동창회장)로부터, 2018-19년 회기를 맡아 새롭게 동창회를 이끌어갈 차기 동창회장으로 정균희(72) 동문(현 남가주 지부회장)이 추천됨. 이에 큰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승인이 이루어짐.

8. 유영걸(76) Convention 위원장의 Convention Committee 활동 보고.  
 a. 2018 Convention 일자: 6월 21일(목)-6월 24일(일), 장소: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Hotel (Teaneck, NJ), Room Rate: \$139.00 per day, Cutoff Date: 2018년 6월 1일(금) 등, 현재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b. Convention Format 변경: CME/Non-CME meeting 시간을 금, 토(오전)에서 토, 일(오전- 오후 2, 3시)로 변경/ General Session 신설 (CME/Non-CME 구분 없음): 약 4시간/ Preconvention Tour: 금요일 - FDR House/Museum 및 Vanderbilt Mansion/ post-convention Tour: 일요일 New York City Tour/ Golf: 목요일, 금요일/ Grand Banquet: 토요일 등, 지난 1차 이사회의 승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상세한 세부 내용이 보고됨.

c. 젊은 세대 참여 증진(travel support를 통한)을 위해 Fund Raising - Convention Program에 병원, 제약회사, 의료 기계 회사 등의 광고 게재 허용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따른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d. 지난 1차 이사회 때에 결정된, Convention Registration Fee: Regular Member (\$200), In-training Member (\$50)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짐.

e. 현재 본 학술대회에 참석이 확인된 한국 임원 및 강사들은 - 홍정용(75, 서울의대 동창회장), 서창석(85, 서울대학 병원장), 신찬수 (87, 서울의대 학장), 김종일(90, 서울의대 교무부학장), 윤강섭(81,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수), 김연수(88, 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 권용진(97, 공공의료 사업단장), 양종인(98, 서울의대 내과), 문형곤(00, 서울의대 국제협력실장) 등의 참석이 확정되었음.

f. 제 35차 학술대회의 사전예약 방법에 대해 널리 홍보하기로 함. 또한 마감 기한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사전 예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학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됨을 널리 홍보하기로 함. 사전예약 정보는 다음과 같음. 제35차 학술대회의 예약 전화 번호: 1-800-992-7752, Block name: SNU CMAA / 호텔 예약 웹사이트: <https://book.passkey.com/e/49569783>

9. Scientific Committee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3면 프로그램 참조)  
 10. GP Committee 활동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GP member 현황 분석(Per graduation year, Immigration and professional status, Geographic location, Working place/institution)을 통해 중, 장기 맞춤형 사업(예: Encouraging and sponsoring small, local (regional) GP events) 개발을 구상하고 있음을 지난 회의에서 보고함. 위 사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서베이 결과가 발표되어 큰 호응을 얻음.

11. GP Committee / "자랑스런 Mentor 상"  
 a. 취지: 후배들 미주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된 선배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하고, 후배들을 이끌어 갈 위치에 있는 동문들의 Mentor로서의 노력 고무하며, 미주 동창회원 수의 증가와 동창회를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b. 자랑스런 Mentor상 수상자 추천 광고 (시계탑에 공고하기로 결정됨)  
 c. 신청 접수 (Need at least one nominator and one supporter): 1 page statement by the nominator 가 제시되어야 함. (수상자: 1 년에 한 명)  
 e. 대상자 선정: GP committee 안에 선정위원회 결성 -그 위원회에서 결정  
 f.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 "SNUCMAA member only" or "Any Physicians or Scientist"를 포함하여, 논의가 진행됨. 동문 내로 국한하지 말고, "상의 취지에 맞는 Any Physicians or Scientist"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재청 및 승인이 이루어짐. 수상금이 있어야 하며, 그 금액으로는 \$1,000.00의 의견이 제시, 이에 대해 재청 및 승인도 이루어짐.

g. 심사기준 (Nominee의 CV와 Nominator/ Supporter의 supporting letter를 통한 심사): (가) Counselling and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a mentee to find his/her own path to personal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success / (나) Sponsor and advocate for the mentee in academic or professional community / (다) Involves the mentee i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research, publication, conferences or other venues that can share and communicate intellectual or professional information / (라) Provide support in administrative and professional matters / (마) Successful role model by their colleagues / Long term commitment to mentoring

12. Unfinished business 및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a. 그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문대욱(73) 동문으로부터, 제안이 있음 - 예를 들면, 미주 동문회의 2세 자녀들 중, 의료계로 진출할 경우가 꽤 있으니, 이들과의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여, 미주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동문들과의 교류를 확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음. 이에 대해 한승신 동문회장 또한 전적으로 찬성함을 표시하며 이를 추진하기로 함.

b. 현재, 동문회의 운영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및 그 장, 단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 회의장에서 제시된 이들 의견을 "SNUCMAA Financial Committee" 및 회장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대의원회의와 차기 이사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함.

13. 이만택(58) 동문의 Advisory & Exchange Committee의 활동 내용이 보고됨.  
 a. 2018년도 유인경 교수 기금은 미생물학교실 김동현 교수에게 연구지원금으로 3만 달러가 지급됨. 2018년도 의과대학에 지급되는 장학금 및 연구기금으로, 김현 병리학 (연구기금 5만 달러), 김기태 병리학 (연구기금 2만 달러), 이홍표 순환기내과 (교육 기금 2만 달러), 김의신 핵의학과 (학술 기금 8천 달러) 등이 지원됨. 2018년도 의대 장학금으로, 김용재 장학금 (2만 달러), 김기태-노정욱 장학금 (1만 5천 달러), 이만택-이안나 장학금 (7천 5백 달러)가 지원됨.

b. 현재 시계탑이 약 1,040여 명에게 배부되고 있음. 동문 평균 연령이 70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동문회의 노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임. 말년에, "more generous giving/donation"을 모교에 베푸는 것도 좋을 것 같음.

c. 매년 10명씩 선출하는 이사는 졸업 년도, 거주 지역을 참작하여 균형있게 선출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주소지 변경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거주 분포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이사로 선출되어도 참여가 저조한 동문들도 있는 실정임. 새롭게 이사를 선출할 때에 이러한 거주분포의 변화 및 참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14. 제2차 대의원회의의 일정이 2018년 6월 21일 오후 4시, Morris room: Teaneck Marriott, NJ로 정해짐. - Prepared by 총무 강민중 (91)



# Scientific Session Program 강의 제목과 강사진

## DAY 1 6월 23일 (토요일)

- 7:50-10:00 GENERAL SESSION I** Moderator - 남명호, MD(81)
1. Mental Conditions Affecting Senior Population and It's Management: 박승균, MD (61)
  2. 노년의 신장 건강 (Renal Dysfunction Affecting Senior Population): 김연수, MD PhD, SNUH
  3. 소아 정신 질환 (Childhood Mental Disorders): 김원정, MD (75)
  4. 한국인 암 유전체 연구 (Genetics of Korean Cancer Patients): 김종일, MD PhD, SNUH
  5. 한국 의료보험 소개 (Healthcare Policy in Korea): 권용진, MD PhD, SNUCM

- 10:20 -12:00GENERAL SESSION II** Moderator - 임종식, MD PhD (57)
- Panel Discussion: Healthcare Disparity in Korean-American Population: Emphasis on Stomach Cancer and Chronic Liver Disease including Liver Cancer**
1. Consortium Research Grant for Minority Health Focus: 송민경, PhD, NCI, NIH
  2. 한국의 위암, 간암, 간염의 검진과 치료성적: 양종인, MD PhD, SNUH-BoonDang (Stomach and Liver Cancer - Current State of Care in Korea)
  3. Challenge in Screening for Hepatitis in Korean-American: 한수웅, MD (61)
  4.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iver Cancer in Korean-American: 한혜원, MD (61)
  5. Epidemiology of Stomach Cancer in Korean-American: 이은정, PhD, USC
  6. Treatment Results of Stomach Cancer in Korean-American: 박찬형, MD, PhD (62)

- 12:00-1:00 Town Hall Meeting with Lunch** Moderator - 한승신, MD(76)
- Panelists and Invited guest: 오인환, PhD, 현철수, MD, PhD

- 1:00-5:00 NON-CME SESSION** Moderator -김영애(Mrs. 김성환, MD (71))
1. 스마트폰 잘 사용하기: 서성환, MA, MDvi, PhD
  2. George Gershwin's music and New York City : Joshua Grayson PhD
  3. IRA를 손주세대까지 상속방법 - 일명 "Stretch IRA" : 서정훈, MBA, CFP, ChFC
  4. 대원군과 민비 그리고 서재필: 온기철, MD (71)

- 1:00-3:00 CME SESSION I** Moderator - 강운중, MD PhD
- Panel Discussion: Advances in Medicine -Regenerative Medicine**

1. Neurologic Disorders: 강운중, MD PhD
  2. Orthopedic Disorders: 윤강섭, MD PhD, SNUH (81)
  3. Blood Disorders: 최태웅, MD PhD (02)
  4. New FDA Guidelines on "Cellular Therapy": 남명호, MD (81)
- 3:20-5:30 CME SESSION II: Physician Leadership Training by Case Stories**  
Margaret Carey, MD (Georgetown Univ.) & Penny Potter, PhD (George Mason Univ.)

- ## DAY 2 6월 24일 (일요일)
- 7:55 - 12:00 NON - CME SESSION** Moderator - 최광휘, MD (76)
1. 의사들의 외도: 이원택, MD (71)
  2. 오페라 인생은 풍요하다: 한혜원, MD (61)
  3. The Year of 1776 (그 해 1776년): 최도빈, PhD - 박은경, MD (00) 부군
  4. 수필에 대하여: 김영애(Mrs. 김성환, MD (71))
  5. Aging Change on Face and What Can We Do About It?: 최광휘, MD (76)

- 7:55 - 3:00 CME SESSION**
1. GP Podium Presentation I Moderator - 서귀숙, MD PhD (84)
  2. Panel Discussion I Moderator - 이선규, MD PhD (89)
- Career Choices in the US: Advice from Real-Life Experience**
1. Academic Career
    - a. Trainee: Dept. of Radiology, Univ. of Iowa 박은경, MD PhD(00)
    - b. Clinical Career
      - Early Career: Medical Oncology, Assistant Prof. Northwestern Univ. 채영광, MD PhD (02)
      - Mid-Career: Pulmonology and Critical Care, Univ. of Illinois 박계영, MD PhD (90)
    - c. Research Career: Yale Univ. 강민중, MD PhD (91)
  2. Private Practice: Endocrinologist, California 이도은, MD (99)
  3. Non-Medical Practice:
    - a. Biomedical Career: 강현석, MD MS (00)
    - b. Non-Biomedical Career: 송경민, MD, MPH, MBA (09)

3. Panel Discussion II(Lunch Meeting):Women in Medicine
 

Moderator - 오무연, MD (89)

Panelists: 송경민, MD, MPH, MBA (09); 서귀숙, MD PhD (84); 오무연, MD (89)
  4. GP Podium Presentation II Moderator -장세권, MD (01)
- GP Podium Presenters for session 1 & 4.**
- |                  |                      |                  |
|------------------|----------------------|------------------|
| 강민중, MD PhD (91) | 임경빈, MD MS (99)      | 김현제, MD PhD (07) |
| 박종철, MD (99)     | 채영광, MD MPH MBA (02) | 윤정현, MD PhD (06) |
| 김태근, MD PhD (01) | 신재현, MD PhD (05)     | 김종오, MD (04)     |
| 이도은, MD (99)     | 이준구, MD PhD (08)     |                  |

### 제3회 함춘공로상 수상 소감

1965년 해군군외관 복무 후 도미 -15년 뒤 첫 동기동창회를 saw mill creek resort에서 동기회- 빠짐없이 참석 - 6년을 같이 지낸 동기동창처럼 마음 편한 친구들과 노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즐거움 - 이제 많은 분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나머지 여생을 후배들이 미국 정착에 도움을 주는 green fund에 초점 - 열심히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정정수 드림

### 버지니아 지부 모임과 임종식(57)동문 자서전 출판 축하연

김진수(66) 회장과 조병선(71) 부회장이 주도하는 해마다 회원 수가 증가하는 Virginia Chapter에서는 지난 4월 7일 아난테일 설악가든에서 금년 초 출간한 임종식(57)동문의 자서전 출판 기념 축하연도 함께 있었다.

동창 23명과 같이 오신 부인들을 합하여 총 43명이 모였다. 각 동문들에게 증정된 자서전을 계기로 Donation을 하신 동문들의 것과 Virginia Local Chapter에서 낸 것을 합하여 수령하신 임동문은 전역을 서울의대 학생도서관 증축에 보낸다고 하여 감동을 받았다. 참석한 동문들의 성함은 임종식(57), 김부근(58), 이종국(58), 한달수(59), 나길진(59), 김용덕(59), 박형순(60), 정두현(61), 서취열(61), 이병봉(63), 이동명(66), 김진수(66), 이종오(64), 이용만(64), 유달(67), 김철(68), 김희주(68), 박수웅(69), 조병선(71), 양성훈(71), 김제홍(71), 유연준(74), 박인영(75), 총 23 동문들이고 부인들이 21명이다.

버지니아 Chapter에서는 일년 12개월 골프를 칠 수 있는 온난한 기후와 미국의 행정 수도가 있어서 항상 경제가 안정되었고 또한 한인들의 인구도 근래에 급속도로 팽창한다는 특이한 점이 있다. 따라서 추운 지역에서 은퇴하는 우리 동문은 물론 이 분들의 2세대가 많이 몰려오고 있다. 앞으로 골프대회, 문화예술을 통한 이곳에 사는 동문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사진 참조)



### 남가주 지역 65/66 학년 대항 제3차 골프대회 (2018)

지난 1월 22일 김성수(65)/홍수웅(65) 두 동문의 특별 주선으로 남가주 지역에 서 두 학년 간의 친선 골프모임이 Coyote Hills Golf Course에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동문 16명과 부인 4명, 모두 20명이 화창한 날씨에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65년 동문들이 월등한 실력으로 우승의 명예를 차지 하였다.

골프 대회가 끝나고 근처에 위치한 Wang Tchong 이라는 중국 식당에서 오붓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학년 간의 두터운 정을 나누었다. 아쉽게 일

정을 끝내며 내년을 기약하였다. 참가자는 여자: Mrs. 채도경, 김성수, 이법석, 홍수웅, 채진(식사에만 참석) / 65년: 최영인, 백길영, 홍수웅, 이법석, 채진, 김건인, 채도경, 김성수 / 66년: 조관상, 정상국, 한동수, 심정섭, 광일성, 박용길, 김의신, 김용재.



### 남가주 지역 71년 동기 모임

71년 동기회가 올해 첫 모임을 3월 11일 오후 5시에 로스앤젤레스의 옥스포드 호텔에서 가졌다. 71년 동기회는 세 달에 한번씩 남가주 지역 동창들끼리 저녁 식사를 나누며 동기들의 친목을 다져 왔다.

이날은 특히 고기영, 송창기 동문이 Mid west에서 참여했고, 온기철 동기도 오랫동안 Modesto에서 참석해서 무척이나 반가웠다. 오랜만에 동기들과의 해후는 모두의 가슴을 풍요롭게 채우고 옛 우정을 확인해주는 값진 순간들 이었다.



### 백시환(99) 동문 뮤직앨범 발매

백시환(99) 동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뮤직앨범을 발매했다. 전 10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신경과적 질환(알츠하이머, 파킨슨, 중풍, 아이 앓은 부모, 고아, 아동/노인 학대, 루게릭병)을 소재로 노래한 곡들이며 Google Play, YouTube, iTunes, Spotify, Deezer, iheartradio, 등등에서 청취 가능하다. 앨범 링크는 <https://www.youtube.com/channel/UCxvC1BbN22wAmuGgqWkLTgh>

###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김수산(58)동문 별세 - 옆스테이드 뉴욕에서 radiologist로 practice 하시다가 은퇴한 김수산 동문께서 지난 3월 18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안광원(58)동문 별세 - 로드 아일랜드 providence에 거주 하시던 안광원 동문께서 별세하시어 지난 1월 27일 장례예식이 있었습니다. .

김진홍(63)동문 부인 김민숙 여사 소천 - 김진홍 동문의 부인 김민숙 여사가 별세하시어 지난 3월 31일 장례예식이 있었습니다.



# 대담

##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신용계(68) 동문과 함께

일시: 2018년 3월 27일  
 장소: Chantilly, Virginia  
 참석자: 68 졸업 정재성, 주광국, 서운석, 김영덕, 김주평, 김진홍, 김철, 김희주, 김병오(69)

사회: 신용계 동문은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의 성화주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자원 봉사자로서 보람된 일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1월 말에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0일까지 약 7주간 Paralympic Game(장애인 게임)까지 봉사했습니다. 이제 신동문의 이야기들 들어봅시다.

**질문: 자원 봉사를 언제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자원 봉사자는 몇 사람이나 됐는지요?**

2016년 9월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12월경에 서류 심사에 통과하여 2017년 2월 영상 인터뷰를 하고 5월에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7만 명 이상의 지원자 중에 2만명의 봉사자가 선발되었고 그중 약 1200명이 외국 봉사자로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참여했습니다.

**질문: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경비는?**

경비는 자비로 왕복 비행기표, 그 외 용돈이 자비였고 숙소와 식사, 출퇴근 셔틀, 유니폼은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2월 3일부터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분교 학생 기숙사에 머물며 비좁은 공간에서 2층 침대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하루 세끼가 모두 한식이



니 외국 봉사자에게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연히도, 이곳에서 자원 봉사자로 오신 서울의대 65년도에 졸업하신 Utah주의 백해태(Hugh Paik) 동문을 만나서 며칠을 한 방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숙소를 속초 북쪽에 있는 고성으로 옮겨 강릉의 올림픽 파크에 있는 Speed Skating Venue 내의 의무실에서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경기장에 두 개의 의무실(선수 의무실, 관중 의무실)을 오가며 여러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날씨도 추웠고 피곤했는데 차차 적응하여 경기도도 관람하고 의무실내의 젊은 동료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올림픽 후 2월 26일에 Paralympic Games을 위해 고성에서 황성으로 숙소가 변경되었고, 이곳에서 평창 소재 이중경기장(Biathlon Center for country skiing)으로 출퇴근(1시간)하게 되었습니다. 날씨 온도가 상승하여 황성에는 눈이 없으나 평창/대관령은 그래도 눈이 있어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이중 경기장에서는 Doping Control Chaperone으로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에서 지정한 선수를 경기가 끝난 후 Doping Control에 선택되었음을 알리고 Blood or Urine Sample 채취를 위해 Doping Control Station까지 안내하는 일입니다.

**질문: 그러면 소변, 피검사는 바로 나오는가요?**

평창 올림픽에서의 소변과 혈액 샘플은 분석을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원

(KIST) 도광컨트롤센터로 보냅니다.

**질문: 진료실에서는 어떤 환자들을 만났습니까?**

추운 날씨 관계로 Upper Respiratory Infection 환자가 많았고, 그 다음이 Noro Virus로 의심되는 위장 질환 병세였습니다. 강릉에 바람이 많이 분 날에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고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질문: 혹시 북한 선수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까?**

Olympics 기간에는 Speed Skating 북한선수는 접촉이 어렵고, 여자 Hockey Team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Paralympics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의 장비와 탈의실이 Doping Control Station 앞에 있어서 자주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선수들을 격려하려는 날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사진 촬영에 반갑게 응했습니다.

**질문: 가장 기뻐던 기억은?**

강릉 Speed Skating 마지막 경기인 Mass Start에서 한국 선수의 금메달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경기장에 퍼지면서 손을 가슴에 얹고 오랜만에 불러본 애국가. 여자 빙상 500 meter 경기에서 체구가 유럽 선수보다 월등히 적은 일본과 한국 선수가 금, 은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이 기쁘고 놀라웠습니다.

**질문: 가장 감동적인 기억은?**

Paralympic Cross Country Skiing과 Biathlon 경기에서 여러 장애인(Upper limbs, Lower limbs, Visually impaired)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은 아름답고



사진: (위) TV 인터뷰하는 신용계 동문, (아래) 장애인선수들과, 북한선수와 함께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사격경기에 임하고, 팔 혹은 다리 하나, 양쪽이 없는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정신력과 투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Paralympics 중에 아쉬웠던 점은 한국미디어(방송사) 관심이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아주 미약했습니다. Doping Control Chaperone으로 미디어 지역을 자주 드나들며 느낀 점입니다

**질문: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숙소와 근무지 강릉이 너무 멀고(버스로 1시간 10분), 경기가 오후에 있어 밤 열시 이후에 숙소에 오는 날도 종종 있었고, 한 숙소에 방이 두개이나 4명 혹은 그 이상의 봉사자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장소가 불편했습니다.

**질문: 다음에도 또 올림픽 자원봉사를 하시겠습니까?**

2년 후에 Tokyo Summer Olympics과 4년 후에는 Beijing Winter Olympics가 있습니다만 젊은 봉사자에게 양보해야지요.

사회: 질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닥터 신이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감기 몸살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걱정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와 줘서 기쁩니다. 그 때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들 걱정하여 힘이 들면 무리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권하였기도 했지요. 이것으로 대답을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사회, 기록: 편집인



## 임종식(57)교수의 저서 A Virus Hunter 를 읽고

며칠전에 본인은 지난 달 임선배님이 출간하신 Hard Cover Book인 9X9 인치의 200 페이지가 담긴 저서(Memoir)를 접하게 되었다. 작년 2월 사모님 Mary Lytle Rhim을 떠나보내신 후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하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만 88세의 나이에 이 세상 다른 어디에서도 또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책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지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세 살때 온돌방에서 미끄러져 생긴 대퇴골의 골절을 잘못 치료받았는데 당시의 모든 명의들이 다리를 절단해야만 살지말지 하다는 불치병이라고 결론을 내렸단다. 그렇게 6년간을 고생하였다가 어느 날 고름이 줄줄 나오던 그 다리의 상처에 어떤 한방의사가 흰 종이를 돌돌 말아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상처에 넣고 무엇이 성분인지 알 수 없는 가루약을 그 속에 집어 넣어서 완치를 받게 되었다. 그때가 1939년 이니 항생제가 나오기 전 일이다. 그 약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어쨌던 그 한방의사의 비방은 기적처럼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던 것이다. 그 후 저자는 자신이 자라서도 그런 불치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돌보는 좋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연로하신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면서 당면한 모든 경제적, 신체적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세계적인 Medical Researcher로 되기까지의 그의 행보가 이 책 속에 들어있다.

다섯 part로 정리된 각 chapter에는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이야기, 미국 이민초창기 생활, 가족 소개와 사진과 글들, 기억나는 여행과 사건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잊지 못할 사람들 그리고 저자의 약력과 연구논문에 대한 소개가 있다.

왜 그가 의사의 길을 택했으며 그중에도 virus를 또 cancer(prostate) research를 왜 하게 됐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환자들의 절망적인 불치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해주려고 하는 목표와 마음을 그는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 생명을 경외하는 사람과 휴머니즘이 그의 90평생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담겨져 있음을 독자는 이 책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한편 그가 살았던 일본강점 시대와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그리고 그가 만난 훌륭한 스승님들, 특히 전염병학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가르치시던 전종휘 교수님, 구강으로 한번 투여하는 Polio Vaccine을 개발한 Dr. Albert B. Sabin, 그리고 Dr. Joseph L. Melnick, Dr. William McD, Hammon, Dr. Robert J. Huegner에 드리는 소개와 감사의 말씀들은 요즈음 찾아보기 힘든 사제지간의 정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 책을 읽으니 1966년경에 본인과 전국 의대생 일부가 본과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정부에서 드러온 Sabin Polio vaccination을 하느라고 2-3주간 강의도 못 들으면서 학비를 벌기 위하여 변두리 지정 병원으로 그 접종을 어린 아이들에게 하러 다니던 기억도 떠오르게 한다. 이 vaccine의 덕택으로 이제 소아마비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된 질병이 되었다. 알고 보니 이 약의 개발에 그 당시 임선배님이 참여하였다. 우리는 JAMA에 실린 136 페이지에 있는 표지의 사진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130-150 페이지에 달하는 칼라 사진들은 그 외에도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미국 Cincinnati, Ohio와 Pittsburg, PA에서 부인을 처음 만났던 젊은이들의 사랑이야기도 아주 상세히 적혀있고 그 이야기는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쓴 애정소설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진솔된 기록이다. 지난해에 사랑하던 부인을 떠나보내는 이야기는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배우자의 마지막 남은 고통의 시간을 것처럼 같이 나누면서 잘 보살피고 돌보는 훌륭한 남편의 모습을 우리는 우러러 보게 된다.

또한 임선배님 부부께서 5남 1녀(한명 딸은 입양)와 13명의 손자손녀를 최고의 교육과 사랑으로 미국 주류사회의 일꾼으로 육성하신 일과 부인의 평생 소원인 The Winchester School을 창설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일인 것을 독자는 알 수 있다. 물론 부인의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임선배님의 외조가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며칠 전 나와 함께 이 책의 출간을

축하해드리려고 온 친구 이서구(문리대 61 입학, Rhee, Sue Goo PhD) 교수(NIH Scientist, 연세대, 이화여대 생명과학 연구소 창설자)와 임선배님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책에 실린 논문들을 보니 그 업적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논문 한 편 발표를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을까? 흔히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유혹의 말로 예술가들이나 문학가들이 좋은 작품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위안을 얻는 것처럼 이런 Medical Science Researcher들의 논문은 오래도록 남아서 앞으로의 의학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임선배님의 Curriculum Vitae Part에는 유명한 세계적인 의학, 과학잡지에 올린 논문이 약 323편 이다. 이런 업적을 남기는 이 두 과학자들의 얼굴을 이날 대하면서 본인은 단순한 개업의사로 정신없이 평생을 지내던 나 자신이 어찌지 부끄러워지고 머리를 숙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의화학이나 화학상의 수상자가 곧 될 수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해본다.

- 글: 편집인 서운석  
 참고로 이 책은 영문판이며 앞으로 Paperback으로 책이 나와 쉽게 보급이 될 것이며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7914120

A virus Hunter -Johng S. Rhim, MD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소로 구입이 가능하다. Hard book은 권당 50불이고 모교 서울의과대학 학생도서관 기금에 사용될 것이다.  
 Johng S. Rhim, MD(jrhim@verizon.net)  
 11455 South Glen Road  
 Potomac, Maryland 20854



#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수중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4. 관심이 있는 그동안 하셨던 연구 분야, 하셨던 임상 전문 분야는?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 들었던 때는?
6. 의대 학창시절 추억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소개해 주세요?

7. 다시 태어나신다면 의사가 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8. 자녀 분들을 가르치실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 하여 주세요?
10.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나 시계탑 신문 발행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 이종용(58) 선배님

1. Fitzsimmons Hospital, Denver Colorado in 1961. 한국 제18 육군병원 내과 resident 수련 과정 직후(OJT). 가난하던 조국, 태평양을 건너는 출국자 외환 반출한도 일인당 \$50.



2. 친구 소개로 오래 사귀 후 결혼했고, 행복한 때는 무려 8년 반의 길고 지루한 군의관 강제 복무기한을 끝내고 (1966), 노총각들 소굴 독신 장

교 숙소를 떠날 때와 늦은 첫딸 출생 (1969)이 시작 곧 대가족으로 발전하여 삼남매와 그 배우자들 및 아홉 손주들로 시끌벅적한 지금이 가장 행복.

3. 첫 희망은 법학과였으나 문중 어른들 권유와 압력을 존중하여. 의사의 조건은 간단... 노력, 상당한 열정.

4) 관심분야는 일반내과(한국전문의) 결핵 및 호흡기내과(한국전문의) 진단 및 치료방사선(American Board of Radiology), 핵의학(American Board of Nuclear Medicine)

5)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어디 한가지 뿐인가요? 요즘 같아서는 늦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배우자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

힘든 일도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생각나는 것은 열여덟살때 청과조합노동일. 서투른 지계집이 기울어 수박스무 개가 한꺼번에 박살나 배는 곱는데 온종일 일한 품삯도 못 받고 임시 일용직에서 쫓겨날 때.

6. 생화학 재시험, 재재시험에 낙방 거사. 초진장으로 열나게 준비한 최종 시험은 맥 빠지게도 쉬운 약식 test로 통과 그 자리서 주임교수님 웃으며 손수 건네주신 술잔은 50cc 유리 beaker, 축하주는 수돗물로 희석한 시험실용 ethanol 몇 방울. "괜찮아 먹어봐" 하고 권한신 안주는 지독한 화학약품냄새가 나는 건조 gelatin 조각...

쓰디 쓴 격려 말씀 지금도 생각나고 감사합니다.

세브란스 원정 탁구시합 대패.

7. 의학은 한 생애면 충분. 다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정의로운 정치인.

8. 후배 자녀들에게는 motive.

9. 운동, 취미; golf, Hcp 12, 가끔 여행, 소식하여 날씬해지는 게 꿈

10. 회원 노령화, 후속 동창회원수 감소, 동창2세 결집 난망을 통감.

a) 소수 정예 서울의대 시계탑으로 버티든지 훗날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지에 merge하여, "시계탑 난"으로 존속. b) 본국 서울의대 박물관에 해외이주동창의 역사, 특기할 행적이나 업적, 기록, 주소록 등 보존.

## 이상설(58) 선배님

1. 1965년 6월에 뉴욕에 왔습니다. 미국의 선진 의학을 습득하고 미국과 같은 넓은 세상에 와 보고 싶었습니다. 수중에는 단돈 \$50 밖에 없었습니다.



2. 고향친구의 누이동생과 결혼했는데 당시 의대 합춘원에 캠퍼스가 같이 있었던 서울 음대 성악과를 나온 그녀를 저는 그녀가 경기여고를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고 처갓집과 동향이신 어머니가 여러모로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질문하시면 65년 내가 도미할 때는 혼자 왔고 3개월 후에 아내와 첫 딸이 왔습니다. 짧은 이별이었지만 저는 그들을 그리워하다가 JFK공항에서 재회했으며 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한동안 두 딸을 낳고 기르다가 몇 년 후 아내가 셋째 아이를 분만하던 날, 분만실에서 간호원이 "It is a son! Dr.

Rhee!" 했을 때가 또 행복했습니다.

3. 왜 의사가 되었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의사가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의 사건이었습니다. 납침으로 시작된 6.25 사변 때였지요. UN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고 9.28 서울을 재탈환하고자 UN군의 공격이 시작 됐을 때였는데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날이었

지요. 저의 형이 집의 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약! 하면서 제 눈앞에서 즉사했습니다. 형은 포탄의 파편을 맞아서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저는 짜늘해지는 형의 시체를 안고 울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면서 결심했지요. 의사가 되어서 특히 외과의사가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형은 저를 도규계로 인도하신 스승인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해방 직후 형은 공대 기계과에 입학할 무렵 이었는데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본인이 Acute Pnuemonia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그때 형이 친구를 통

하여 미군병원에서 Penicillin 구해서 의사들에게 주어서 제가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형은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합니다. 당시 그 약이 서울대학병원에는 없었어요.

4. 일반외과 특히 외상에 관심이 많아서 외상환자를 많이 치료했습니다.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과 모든 사람의 건강, 대인관계, 현명한 선택.

가장 힘들었던 때는 긴(8년) 군 복무, 긴 수련기간, 수면부족, 만성피로.

6. 학창시절 의대 음악회를 주최할 때 본인이 총무로 계획, 진행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의대 Orchestra는 학생과 교수님들로 구성됐었지요. 한 기초학 교수님이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데 약기가 없으니 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Horn이었습니다. 비싼 수입품이었지요. 저는 여러 선배님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울지모에서 개업하시는 어떤 선배님한테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그 비싼 악기를 사서 그 교수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때 그 음악회는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그 후에도 해마다 의대 음악회는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가면허시험 준비위원회 대표로 전국 6개 의대에서 각각 2명씩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회의를 했지요. 정보교환, 출제예정교수들의 명단, 그들의 출제경향, 나는 급우이군과 참석했는데 타 대학으로는 세브란스의과대학, 이화대의, 수도의대, 광주의대, 대구의대 등이었지요.

7. 다시 태어나면, 아직 좀 생각 중인데 아마도 또 의사가 될 것이면 이번에는 임상보다는 기초의학 연구로 의학계에 공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8. 자녀들과 자주 대화를 할 것. 그들의 재능을 잘 파악하고 대화는 topics으로 대학선택, 결혼관, 종교관, 이성교제, 인종차별금지 등등.

본인은 일에 쫓기다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특히 대학을 진학시키고 난 후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9. 취미는 Oil Painting, Fly Fishing, Golf 등. 지금은 재활치료 Class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10. 시계탑 편집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로그가 좋군요.

## 김수산 형을 추모하면서

이종용(58, 오하이오)

金壽山 兄  
<Class 1958의 星座>에서 빛나는 별들 그 중 큰 별 하나 時空 속에 멀어지며 어두워 지네요.  
오늘 아침 우리를 오랜 벗 수산 형의 별세소식을 받았습니다. 슬픔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늘나라의 평화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평소 수산 형은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평생 독서열이 식지 않은 그의 정열과 끈기가 이유지요. 무슨 일이나 진지한 태도와 어려운 일에 도움을 自講하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지요.

형의 그 따듯한 미소를 기억합니다. 일찍 도미하여 Radiology를 전공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구와 teaching에 몰두하여 일벌레로 끝나려나 했습니다. 그 후 西 뉴욕주의 개업 group으로 옮겨 성공적인 practice와 함께 여유 있고 豐饒로운 인생을 경영하여 왔습니다. 서울약대출신의 chemist이자 헌신적인 교육자며 현모양처이신 Mrs. 김정희의 내조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

어 왔지요.

용모가 단정하고 孝誠스런 아들 삼형제를 명문학교를 거쳐 모두 훌륭한 의사로 키워내고 짝을 지어 주었지요. 며느리는 셋이 다 백인이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전통 한인며느리들의 좋은 점을 많이 익히게다가 서로 화목하고 우애가 깊어 칭찬을 받습니다.

수산 형의 서재는 잘 정돈된 수많은 도서로 두 벽면의 서가가 가득 찼습니다. 특히 일본 역사와 문화 분야의 책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그는 일본어에 능통했습니다. 그 분야에 또 다른 권위자이던 고 이백기 형과 만나면 죽어서라도 맞아 끝없이 긴 시간을 맞장 토론하곤 했지요.

수산 형도 음악을 좋아 하였지요. 그는 고전음악에서 최신 유행가요를 망라하는 CD를 다량 소유하고 즐기는 음향 미식가였습니다. 가끔 혼자 흥얼 흥얼할 때가 있었고요.

초기에는 낚시가 취미였습니다. 호수와 여러 계곡을 따라가며 trout를 쫓아다니더니 필경에는 Fly fishing으로 격상하여 중년에는 한 외물베기 외로운 낚시꾼 같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 골프로 전향하였습니다. 一說에 원시시대 수렵민족이 협동하여 야생동물이나 맹수를 공격 한때 사용한 club이 골프의 기본 장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보다는 집단으로 사냥하고 서로 어울리던 습관이 본능의

gene속에 심어져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club을 휘두르고 킬킬대며 밖으로 쏘다니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환갑나이가 다 되어서야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수산 형은 우리 의과대학교 졸업 30주년 기념 Caribbean Cruise 때 우리가 질긴 Island 풀밭에서 단연 두각을 내밀어 모두 놀랐지요. 두 내외는 물론 삼형제와 며느리들까지 온 식구가 모여서 즐거움을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은퇴 후 10여 년째 겨울철은 골프의 Mecca라는 N. Myrtle Beach의 별장에서 지냈습니다. 바다바람이 찬 캐로라

이나인지라 그의 자가용 cart에는 완전 텐트포장에 후끈한 Propane stove를 장치하여 전천후에 출격이 가능한 호화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잘 견디어내고 학문과 의료에 상당한 성취와 업적을 남기고 떠나가는 수산 형을 기립니다.

몇 해 전 우리 모임에서 박용하 형이 나와서 애란 민요 O Danny boy를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심금을 울리는 대목이 떠오릅니다.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나 또한 가야지..."

### 2018년 4월 7일 시계탑 편집회 초록

참석자: 이희경, 허선행, 서운석, 서량, 서인석, 김정아, 한승신, 이선희, 황창근, 박은경(사전 연락이 있었음)



재무보고에 이어 제2회 우수작품상을 계속하기로 했음. 지난 호에서처럼 더 이상 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 교정에 시간을 많이 보냈음.

김병오 동문이 시 부문에서 받은 우수작품상금 전액을 동창회에 직접 보냈음을 재확인했으며, 이번에 기고된 작품중 시계탑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 원고는 편집회의 결정으로 올리지 않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다양한 원고가 충분히 들어왔으며 다음 편집회는 7월 14일에 갖기로 하고 기념 촬영 후 폐회했음. - 기록: 편집인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 이 사람의 향기

## 10문 10답

### 이도은 (99) 동문

이번 호에는 San Francisco 지역에서 내분비내과(Endocrine Services of Bay Area; 웹주소 <http://www.bayareaendocrinel.com>)를 개원하고 있는 이도은(99) 동문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이도은 동문은 모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치고 도미하여 Jacobi Medical Center, Bronx, NY에서 내과 레지던시,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Bronx, NY에서 연구 펠로우쉽, Winthrop University Hospital, Mineola, NY에서 내분비 펠로우쉽을 마친 후 개원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에는 의대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New York Philharmonic을 좋아하며, 와인과 운동을 즐기고,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어떤 메뉴도 맛이 열 배쯤 되게 만드는, 행복의 파장이 흘러넘치는 이도은 동문을 만나보시지요.



#### 1. 어떤 계기로 미국행을 택했나요?

언젠가부터 서양에서 한번 정도는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외국 영화에 나오는 드넓은 자연 풍경,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사는 모습을 접하며 호기심이 움텄달까요. 예과 때 호주로 두 달 정도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렵곳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 그리고 인턴 하면서 한국에서 있었을 때 느꼈던 여성 차별도 유학과 이민을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과는 레지던트를 선발시 공식적으로 여자를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었고, 2년에 한번 미만으로 여자를 뽑는 과도 있었는데, 다들 당연시했고 아무도 개선하고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과계 어느 과는 인턴 배정시 여자는 수술장에서 힘을 못쓰다며 남자 인턴만 받는 과도 있었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단 의대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여자이기 때문에 제약 받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를 갑갑하게 만들었던 것 중 하나는 여자는 무조건 다소곳해야 한다는 인식이에요. 저는 목소리가 크다고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았어서 목소리를 작게 내려고 신경쓰느라 스트레스가 컸어요.

미국에 오게된 결정적인 이유로 강현선 선배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편집위원 주: 98졸 강현선 동문,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Houston, TX). 한 학번 선배이자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바이올린을 했던 현선 언니가 졸업 후 도미해서 당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오려고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레지던시 인터

뷰 시즌에 언니 집에 장기간 머물면서 여러모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언니, 제가 실수로 세탁 세제를 잘못 넣어 온집안이 거품바다가 되었는데도 화내지 않고, 고마웠어요!"

#### 2. 한국과 미국에서의 병원 생활을 비교한다면요?

한국에서 인턴으로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피교육자인 수련의들, 특히 여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을 대하는 선배나 동료 의사들의 부당한 모습에서 실망이 컸습니다. 회식 때 억지로 술 먹이는 것은 당연했고, 슬쩍만저도 참아야했고, 술자리에서 교수의 춤상대가 되어줘야 하는 식의 일들이 흔했어요. 성추행 수준의 말과 행동을 그저 감내하기만 해야했던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의대 안에서 소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지 여자여서 그랬던걸까요. 수련 과정 중의 여자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었으니 원참. 요즘은 #me too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병원내 추행/폭력이 근절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상대적으로 미국에 와서는 병원생활이 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위로 억압하거나 성별로 차별하지 않고, 인격체로 그리고 전문인으로 존중하며 일하니까요. 인턴 초기에는 영어가 힘들어서 속상한 마음에 울기도 하고 고충이 있었지만, 적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부당함은 없었습니다.

#### 3.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언니와 제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함께하며 추억을 많이 쌓았는데, 어느덧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중년의 의사가 되었네요. 예전에 언니가 연건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모습, 바이올린 연습에 몰입하던 모습, 여름날 단발머리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시원하게 웃던 모습, 뉴욕에서 인턴할 때 최신식 PDA로 질병정보를 검색하던 모습 등이 떠오릅니다. 활기차고 호방한 언니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지요.

한국에서 인기요? 잘 모르겠는걸요. 보수적인 의대 분위기에서 튀다고 입방아에 올랐었지요. 여기서는 여전히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줌마의 삶이죠 뭐.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 손이 많이 갑니다. 마흔 중반에 아이들이 겨우 5살, 6살이니 체력이 부쳐요. 남편까지 포함하면 애 셋 키우는 느낌이지요. 호호.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거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남편과 와인을 즐겼었는데 그것도 즐겼어요. 주말에 한 번, 평일에 세 번, 합해서 일주일에 네 번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평일에는 퇴근 후 gym으로 직행해서 운동하고 있으면 baby sitter가 애들 픽업해서 데려옵니다. 제가 운동하는 동안 아이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놀고 운동도 하지요. 이곳 gym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저는 수영을 하거나 각종 class에 참여하고, 아이들은 수영과 태권도를 합니다. 최근에는 하나람 미르 돌 다 노란 벨트를 땀어요! 운동하고 나면 잠도 푹 잘 잘 수 있고, 다음 날 아침이 상쾌해요.

#### 4. 졸업 후 바이올린을 다시 손에 잡은 적이 있나요?

바이올린은 대학교 끝나고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뉴욕에 사는 동안 New York Phil 공연은 한 50번 정도 보았습니다. 중고등학교때부터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즐겨 들으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 비브라토로 연주하는 하이톤의 슬픈 바이올린 선율은 하이틴 소녀의 감수성을 건드리기에 충분했지요. 특히 브루흐(Bruch)의 콘체르토는 다 좋아했습니다. 의대에 합격하자마자 처음으로 악기를 잡고 레슨을 받

고 의대 오케스트라에 입단했던 것인데, 바이올린 파트는 워낙 어릴 때부터 악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악기 실력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저는 악기 자체에 대한 애착보다는 단원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이 좀 더 자라면 바이올린도 다시 배우고 싶고, 불어도 배우고 싶고, 꽃꽂이도 배우고 싶고, 스쿠버 다이빙 라이선스도 취득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네요.

#### 5. 동부에서 인턴-레지던트-펠로우 수련을 마치고 서부로 가셨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것은 어떤지요?

지금 사는 곳은 Lafayette이고, 오피스는 Napa에 있습니다. 집에서 Napa valley가 40분 정도 거리이고 샌프란시스코는 30분 정도 거리인 만큼 살기도 여행하기도 좋아요. 장은 Koreana plaza 라는 곳에서 즐겨 봅니다. 고기, 야채며 과일이 저렴하고 신선해요. 마트가 다소 위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남편이 걱정을 하지만 이곳을 빼고는 식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군요. 온 식구가 김치며 된장국도 여전히 즐겨 먹어요. 서부는 지진과 화재의 위험이 있지만 날씨가 정말 좋고, 먹거리가 신선하고, 한국과 가까워서 좋습니다. 동양 문화에 친숙한 것도 장점이고요. 한국 사람이 워낙 많아서 Starbucks에 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들을 흔히 마주쳐요. 동부에서는 Manhattan과 Long Island에 살았는데, 저는 추위를 워낙 많이 타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New York Phil 공연이나 Met opera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어서 좋았지요.

#### 6. 올해로 개원한 지 10년째인데, 병원 운영하며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실까요?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주로 어떤 환자들을 보시나요?

2009년 8월에 개원했으니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Napa와 Lafayette의 두 군데에 진료실을 두고 주로 당뇨, 갑상선, 골다공증 환자들을 하루에 20명 정도 봅니다. 소위 환자 숫자보다 의사가 더 많다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외국의로 출신 의사로서 단독 개원할 때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당신이 라면 당연히 잘 할거다' 라는 남편의 격려가 용기를 북돋워주었습니다. Napa 지역은 당시 endocrinologist가 적었고, 운 좋게 은행 대출 조건도 좋았습니다.

환자를 보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진정한 대화를 나눌 때 즐겁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와 당뇨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식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나 직장 사람들에 관한 대화로 이어지지요. 환자들이 깊은 생각과 감정까지 제게 터놓을 정도로 신뢰감을 보여줄 때 가장 보람됩니다. 진료를 하면서 단순히 HbA1c 점수만 개선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보듬어줄 수 있는 의사로 매일 살 수 있다니 기쁘고 감사하지요.

단독 개원의로서의 장점을 뽑자면, 의사 결정 과정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진료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Kaiser같은 큰 그룹에 속

했다면 의사 결정시 1년은 족히 걸릴 것을 저는 이를 정도에 끝낼 수 있습니다. 10년차가 되었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제가 구상했던 ideal practice를 하고자 요즘도 어디 고칠 것이 있나 늘 눈과 귀를 열고 일하고 있습니다. 단독 개원은 group practice보다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휴가를 길게 낼 수 없다는 점이 있지만, 병원 운영을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하루에 환자를 더 많이 보는 대신 일하는 날짜를 줄이고자 합니다. 힘든 점은 보험과의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올해 동창회에서 발표자로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의로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과 의견 나누고 싶습니다.

#### 7.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볼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 시절 저는 그냥 '짱돌'로 기억이 남고, '이도은 어록'이 수두룩 있었던 생각도 납니다. 제가 남들과는 다른 상식을 갖고 있나봐요. 낭설을 많이 한다며 친구들이 재미있어 했지요. "야, 이번에 이도은 얘기 들었냐? 개는 뽀뽀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 뭐 이런 거요. (편집위원 주: 뽀뽀는 호출기, beeper를 의미합니다.)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네요.

#### 8. 한국 방송은 즐겨 보시나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어떻게 연락하며 지내시는지요? 자주 방문하시는지요?

한국에는 거의 매년 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연락은 아무래도 카톡(kakao talk)과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서 합니다. 한국 방송은 즐겨보지 않아요. TV 자체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인도나 중국,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저보다 배우 이름도 더 잘 압니다. TV를 본다면 저희 동네에 베이스를 둔 NBA Golden State Warriors 경기를 가끔 보는 정도?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Stephen Curry라는 유명 농구 선수의 딸들도 다녀서 농구 경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참, 저는 스포츠 중계를 함께 보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같이 보시면 지루한 경기도 무척 흥미로워집니다!

#### 9.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글귀, 괜찮았던 영화 등이 있다면 시계탑 독자들에게도 귀띔해주세요.

아, 참회합니다. 딱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앞으로 시간을 내어서라도 사람이라면 읽어야 하는 명작 죄와 벌 정도는 읽어야 할텐데요.

####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야!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사람이 되도록.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우고 하면서 사랑, 겸손,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감정 지수도 예전엔 거의 빵점이었는데 지금은 한 5점 정도 됩니다. 더 높아지면 좋겠어요.

박은경 편집위원: 오늘 전화 인터뷰 즐거웠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이 땅에서 피워내는 삶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농담 골목

후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전까지는 짧은 여자를 보면 가슴이 출렁거렸는데 이제 안 그렇습니다. 내 신경이 늙어지는 듯 합니다." (노용면)

선배 한 분이 말하기를 "나는 넘어질까봐 겁이 나, 남을 가까운 거리에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노용면)

무술년 새 해를 맞아 어떤 사람이 점을 보았는데 점괘가 이렇게 나왔다. "정신 바짝 차리시오! 돈뭉치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기쁜 점괘를 빨리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어 자동차 속력을 내면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만 현금 수송트럭과 크게 충돌하고 말았다. (이덕승)



1월 19일, 제1일:

"Pura Vida! Costa Rica!"

LA 지역 71년 동기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며, 한번 여행하자던 이야기가 결국, 2018년 1월 19일 코스타리카 5박 6일 코스로 LA 7커플, 뉴저지 1커플, 미시간 3커플이 함께하기로 했다. 당일, 남편은 소풍 전날인 듯 들떠 아침 6시 약속인데 새벽 3시부터 커피를 끓이고 오락가락, 덩달아 나도 설레어 남은 짐을 꾸리고, 엿저녁 끓여 놓은 김치국에 한술 뜨려는데 정전이다. 플래쉬 라이트를 켜고 대충 짐작으로 전원을 끄고 나가니, 다행히 예약 택시가 미리 와 있다. 콘도 시큐리티 가드에게 매니저가 출근하면 전기 좀 점검해 달라 부탁하고 택시에 오르니 그제야 여행이 실감난다.

너무 일찍 도착했다 했던 건 기우, 벌써 라구나우드와 얼바인 등 먼 곳 친구들 포함 4집이 모여 있다. 김일영, 이원택 남네를 마지막으로 61번 게이트에서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1시간 연착이란다. 아니, 왜 자꾸...? 찝찝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 없어 함께 얘기하다 보니 불안도 사라지고 탑승 시간이다. 6시간 긴 여정도 친구가 많으니 훌쩍, 코스타리카 산호세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오니 현지 여행사 김사장님이 반기며, 다른 팀은 전날 도착 5분 거리 호텔에서 기다린단다. 다 모였는데, 김일영 씨네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누가 짐을 잘못 가져갔다며 지친 모습으로 나온다. 우선 나왔으니 다행이라며 호텔에 들러 닥터 강태수, 강유구, 김유식, 이성길 남네와 합류 식당으로 갔다. 이 나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새로운 음식, 반가움으로 왁자왁자 활기가 가득하다.

Costa Rica는 Coast+Rich이고, 화폐는 1502년 발견자인 콜럼버스의 스페인어 풀롱이며, 첫인사는 Pura Vida! 영어로 Pure Life지만, 실제로는 행복지수 Top인 나라답게 "즐거운 인생, 편안한 인생" 이란다. 1949년 군대를 없애고 사회복지 수준은 senior보다는 junior를 위한 교육과 의료가 최상, 중미의 스위스라 불린다. 첫 식당, Pollo Del Monte (Chicken of Mountain)에서 커피나무 장작(커피나무는 30년이 지나면 잘라 장작으로 쓴다)에 구운 닭과 샐러드, 유가(감자 갈음)와 치즈 튀김, 구운 바나나(여기 바나나는 그냥 먹으면 설사함)를 Imperial 현지 맥주와 먹으니 맛도 기분도 달달하다. 아마도 오랜만에 나는 달콤한 수다가 한 몫 단단히 했으리라. 늦은 밤 첫 호텔, Hilton에 도착, 씻고 피곤한 몸을 누었는데 너무 추워 잠이 오질 않는다. 남편을 깨워 방 온도 좀 올려달라니, 히터는 없고 22도로 고정된 쿨링 시스템 뿐이란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할 수 없이 옷을 껴입고 누워도 흠기는 마 찬가지, 결국 두꺼운 잠바를 덧입고서야 잠들었다.

1월 20일, 제2일:

코스타리카 누운 달을 만나다

조찬은 호텔 뷔페, 모두 엿저녁 추위에 입을 모으며, 열대에서 잠바를 입고 잔 아이러니에 깔깔했다. 5백만 인구 중 70% 이상이 가톨릭이라는 코스타리카는 북쪽은 니카라과, 남쪽은 파나마, 동쪽은 카리브해에 연한 열대 기후로 일년내 70~75도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1/4에 불과하다. 보통 1월은 건기인데 가이드는 미국 동부 한파 영향인지 비가 오는 이상기후의 연속 이란다. 조식 후 태평양 바닷가로 이동, rain forest에서 healing 산책을 한 후, 점심은 바다 앞 비치 카페, CoCo에서 마이마이산 생선요리를 먹고, 비치 길을 걸으며 여행 첫날의 긴장감마저 다 풀어놓고 순진무구한 아해가 되었다.

오후 일정은, 물속에 악어들이 그득하다는 악어 습지를 다리 위에서 보고 나서, 직접 Jungle Crocodile Safari 보트를 타고 야생 악어와 물새들 투어에 나섰다. 투어 가이드가 미운 사람을 물가 쪽으로 앉히려는 농담에서 얼굴을 바라보며 박장대소하다, 강가를 보니 ㅋㅋ 악어들도 물가에서 눈을 맞추는 듯했다. 강가에는 물속에 뿌리내리고 사는 망그로 트리가 무성



한데, 그 뿌리 사이사이에 악어 새끼들이 습생하고, 50여 가지 새들도 서식한다. 그중 핑크빛 자기 발을 미끼로 넣어 노란 부리로 고기를 잡아 먹는 새하얀 Great Egret가 가장 인기였다. 망그로 트리에는 새 둥지가 많았는데, 새들은 아침에 먹이 찾아 출근했다. 오후 5시경 이 둥지로 돌아온단다. 마침 우리 시간과 맞아 퇴근하는 새떼들의 장관을 보니, 역시 모든 동물의 귀소본능은 다 한가지로구나.



관광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찾은 곳도 분위기 좋은 바닷가 레스토랑. 때 마침, 수평선에 걸린 붉은 태양, 노을에 물든 바다, 점점이 떠 있는 선박들이 완전 그림엽서 같다. 각기 sunset 엽서 속에서 찰칵, 단채로도 찰칵, 황홀한 밤바다, 아름다운 밤이다. 동그렇게 돛 식으로 지은 Patio에 들어서니, 예상 밖으로 오늘 테이블 세팅은 삼삼오오 앉던 패턴이 아니라, 11명씩 앉을 수 있는 두 개의 큰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다. 자연스레(?) 남녀 따로 자리 잡고, 식전 와인으로 목을 축이며 한 수다가 벌어지는데, 옆 테이블에서 잔잔한 노래인지, 허밍인지, 교가인지가 들려온다. 돌아보니, 서로 마주 보는 편한(긴장된 의사가 아닌) 모습에 잔한 감동이 있다. 아, 같은 시절을 공유한 우정이란, 저렇게 세상 어떤 경계도 다 무너트리고 삶의 원기를 북돋는 것이구나! 그리고 보니, 다른 여행처럼 남편들에 신경쓰지 않아도 서로 알아서 자리잡고 "그래~, 그럼, 야! 너 말이야~" 두런두런 삶의 향기가 가득했다. 마침 오늘은 이원택 남 생일, 미리 준비된 당근 케이크로 마냥 해피한 해피버스데이, 몸도 마음도 포동포동 행복을 살찌우는 시간이다.

문득, 최인철 교수의 "행복은 영혼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영양소는 -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입니다. 여행은 걷기, 먹기, 말하기, 놀기가 다 있는 일종의 행복 종합세트, 행복 뷔페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에 둔다면 더욱 더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라는 말이 생각나, 여행 다니기 위해 은퇴한 것은 참 잘한 일이나! 스스로 칭찬하며 밤바다를 보는데, 뒤따라 나온 가이드님이 "잠시 하늘을 보세요, 달을 보세요." 한다. 어마나! 생전 처음 보는 달이다.

길이로 가늘게 서 있던 초승달이 등판을 대고 누워있다. 위도와 경도에 따라 저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고정관념을 깨고 누운 초승달, 저 누운 달로 시 한 편 써봐야겠다. 오래 하늘과 달에 눈을 맞추었다.

1월 21일, 제3일: 국토 40%가 공원과 보호구역인 코스타리카의 삼림욕, 커피욕  
오늘은 커피로 유명한 코스타리카

커피 농장을 둘러보는 날, 코스타리카는 해발 1,500미터의 화산재로 형성된 기름진 토양, 커피 생산에 필요한 겨울 없는 온화한 기후까지 천혜의 3대 조건을 갖춘 곳이다. 게다가 정부는 생태계 안정은 물론 품질 관리 및 안정화를 위해 엄격한 규정으로 커피 생산을 관리하고 우수한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아라비카 종만을 재배하도록 법으로 제한한다.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길 원하고 커피 애호가는 죽어서 코스타리카에 가길 원한다'는 농담도 있으니, 이 나라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커피농원으로 들어가 커피 열매(검붉고 탕탕한 열매가 좋은 것)를 직접 골라 맛보니 달착지근하다. 두 알씩 들어있는 씨가 바로 Coffee Bean이다. 보통은 두 알인데 한 알이나 세 알 짜리도 있고, 한 알짜리를 모아 더 비싸게 팔기도 한다. Natural, Honey, Washed 등 등급이 다른 커피 강의를 듣고 Espresso 한 잔씩 마셨는데, 유럽에서 마셨던 것보다 쓰지 않고 구수하고 달큰하다. 보통 아메리카노, 라테 등은 이 에스프레소 원액에 물이나 다른 첨가물을 넣은 것이란다. 오후 일정으로 가는 길에 노점상에서 열대 과일을 맛보았다. 파파야, 망고, 구아바, 코스타리카 사과로 불리는 빨간 겹질에 흰 과육용과(아무 맛이 없었음) 등 모르는 것도 많았으나, 파인에 붙은 재물에 익어 맛과 향이 일품이었다.

Lapaz Water Fall Garden으로 이동하는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공원 생태 박물관에 들어가니(대부분 열대 정글 속 야외), 그야말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오랜만에 비를 맞는 것도 좋았지만, 계단 위에서 바라보니, 타잔이 탔던 넝쿨들이 나무를 칭칭 감아 내린 그 사이사이, 강렬한 열대 꽃과 과실이 매달린 샛길이 기막히게 멋지다. 붉고 노란 생강꽃, 난초, 색색의 우비, 우산이 수놓은 광경은 자연과 인위적인 것들의 몽환적 결합이었다. 이 공원에는 여기 밖에 없다는 검은 앵무새, 허밍버드, 정글 캣과 뱀, 나비 등 진귀한 생물들이 즐비했고, 다른 나라 동물원처럼 수입한 것이 없는 코스타리카 원산의 Organic 공원 이란다. 특히 공원 속 폭포 중 거대한 Lapaz 폭포는 폭우까지 겹쳐 그 세찬 물줄기가 장관이었는데, 마침 우리 사진사 강유구 님이 각 커플의 사진까지 찍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아마도 이 순간이 오래 간직될 것이다.

공원 안, 팔각정 같은 Calibries에서 안개비에 흠뻑 젖어 먹은 점심은, 그야말로 숲을 몸속에 들이는 힐링 자체였다. 그리고 보니, 영화 '쥘라기 공원'의 주요 촬영 무대가 바로 코스타

리카였다고 하니 이 나라 산림의 수준이 어떠한지는 다 보지 않아도 가히 짐작이 간다. 점심을 마치고 나서니, 비는 멈추고 날씨가 화창하다. 호텔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비 때문에 무척 녹눅, 땀아놓은 양말이 3일이 되어도 마르지 않아 헤어드라이어로 말렸다) 산호세 Down Town 관광을 나섰는데, 대통령도 관저가 없이 민가에서 출퇴근, 2명의 경호원뿐인 허술한 대통령 사가가 마음 깊이 닿았다. 여느 나라처럼 중국거리, 중화문이 보이고 잘 지은 아동병원, 단순한 양철 집들, 편안한 거리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임은 알겠는데, 한 가지 왜 철제 울타리를 쳤는지는 이해되지 않았다. 여행 후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서 삼겹살 구이와 상추쌈, 된장찌개와 소맥으로 한국식 식성을 찾았다.

1월 22일, 제4일: 올라!

화산과 온천의 나라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지난 5월에도 화산 폭발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활동이 활발한 화산이 4개나 있는데, 1968년 폭발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활화산 아레날, 세계에서 손꼽는 규모를 자랑하는 포아스 화산이 대표적이다. 특히 포아스 화산은 커피 패키지에도 등장하며, 화산재가 쌓였던 지역에는 어김없이 커피 농장이 자리 잡고, 그런 이유로 코스타리카 커피 농장 대부분은 가장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한다.

남편이 아침 일찍 깨어 화산의 흰 김이 보인다고 사진을 찍었다. 어제 날씨가 흐려 화산이 선명하지 않았는데, 화장하고 찍자면 김이 썰까, 얼른 나가 사진 먼저 찍고, 오늘 필요한 것들을 챙겨 식당으로 내려갔다. 조식 후 나와 보니 다시 안개로 화산꼭지가 사라졌다. 옆에서 툭 치며 "남편 말 잘 들었지?" 공치사한다. 나도 기분 좋게, OK! 고마워! 하니 너무 선선해서 이상한지... 히말절게 웃으니 나도 피식 따라 웃었다.

오늘은 화산 밑 온천장으로 가기 위해 3일간 묵었던 호텔을 떠나 북쪽으로 3시간 정도 이동, Carrara 국립공원, Mistico Arenal Hanging Bridges Park에서 tracking을 시작한다. 1시간 30분 동안 7개 흔들다리를 건너며 발아래 까마득한 밀림을 보니 온몸이 오그라들 것처럼 아슬아슬하다. 더러 뒤에서 장난스레 다리를 흔드니 혼비백산할 지경이지만, 언제 또 이리 즐거울까나 관대(?)하다. 산행 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온천 Baldi에 도착, 심신의 피로를 다 풀어내고 우리는 함께 목욕한 사이~, 스스럼없이 배를 채우고 하루를 마감했다. 온천의 좋은 물 덕인지 수면 장애 없이 여행 중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

1월 23일, 제5일:

코스타리카의 백마, 마차를 타다

몸이 가뿐하도록 잘 자고 나니 더는 바랄 것이 없는 오늘 아침은, 여행 중 유일한 자유 시간. Zip Line, Tracking, 온천, 승마 각자 취미대로 즐길 찬스다. Zip Line으로 유명한 여기서 꼭 Zip Line을 타겠다던 이창우 님은 우리와 이원택 남네랑 말을 타기로 마음을 바꿨다. 유일하게 Zip Line을 선택한 김성환 남네, 마나님 영애 씨는 승마를 원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남편을 지키겠다며 풀하게 Zip Line을 타러 갔다.

마구간에 가니, 오스카라는 리더가 마구에서 5마리를 골라 안장을 엮고, 우리와 말을 matching 해준다. 4마리 brown 말과 백마 한 마리, 나는 저 백마가 타고 싶다는 기다리는데, 말의 나이와 사람의 몸무게를 감안해 한 사람씩 말에 태운다. 기가 막히게도 나를 불러 백마에 태워주니, 신이 나서 "잘 해보자!" 말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올라 타니 와우! 세상이 다 내 발아래다. 9살 백마의 (다음면에 계속)



# 구두 닦이

수필가 김영애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다. 남자들만 구두를 닦고 있기 때문이다. 결심을 하고 높은 의자에 오른다. 구두 모양의 금속판 위에 발을 나란히 올려놓고 앞으로 내민다. 기다렸다는 듯 구두 닦이 노인이 검은 구두 위에 흰 구두약을 넓게 펼쳐 바른 다. 구두에 붙은 세상 먼지를 모두 닦아내려는 것이다. 구두약이 몇 겹씩 덧발라지자 노인이 양손으로 맞잡은 천을 가볍게 좌우로 문지른다. 구두 얼굴에 광택이 나기 시작한다. 그것의 이마가 맑아지자, 움츠러진 세상이 주그러 앉는다. 온 세상을 거느릴 구두이기에 세상이 그 위에 내려앉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검정색과 하얀색 구두약은 무광택과 광택으로 번갈아 가며, 광을 살리는가 하면 죽이고 다시 죽였다가는 살려낸다. 밤과 낮같은 삶의 어두움과 밝음을 오가며 변화하는 구두. 삶을 꾸박꾸박 걸어야 할 구두이기에 그곳에는 세상의 다양한 표정들이 순간이나마 그려졌다 사라지는 것일 터이다.

구두를 닦는 일은 그 표면을 빈 공간처럼 비운 뒤 자신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살려 내는 것일 게다. 하루의 삶도, 평생의 인생도 세속적인 것을 쓸어내고 실존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듬어 반짝이게 하는 것이 아닐까.

끈기 있고 성실한 소의 가죽이 만든 구두에는 꾸준함과 부지런함이 담겨 있을 성싶다. 그런가 하면 활기찬 초록 염색소를 취하는 소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먹이를 되새김질한다. 생각해 보면 소의 분신인 가죽 구두도 활기 찬 걸음 속에 자신을 되돌아보

는 삶의 성찰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듯도 싶다.

노인은 슬하에 일곱 자녀를 두어서인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것 같다. 짧은 하루지만 두 생업을 뛰어 야만 유지되는 삶이다. 아침나절은 공항에서 구두를 닦고 오후에는 근처 매점에서 음료수를 판매한다. 심한 당뇨로 몸이 불편한 그는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신장투석을 견뎌내야만 한다. 낡은 대로 낡은 구두 같은 그의 삶을, 어쩌면 그는 성심을 다해 닦아 내고 매만지며 광택을 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의 부츠는 어쩌면 춥고 질척한 비바람 같은 삶을 막아주는 갑옷일 듯도 싶다. 삶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부츠가 온 세상을 가족으로 덮는 대신 조그만 발 하나를 감싸고 있다. 작은 발 하나를 지켜 주기 위해 부츠는 그렇게 탄탄하고도 긴 기동을 세웠던가. 세상에 내딛을 작은 발 하나를 지키는 것이 온 세상을 단속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작은 소중함을 지킬 줄 알아야 넓은 세상도 평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바람 잦은 인생길이지만 삶의 부츠를 신고 걸으면, 어떤 흔들림에도 소신껏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모난 성격의 나처럼, 부츠의 앞부분은 사각형이다. 동글어서 모나지 않아야 숨겨진 삶의 돌부리에 상처가 나지 않을 것 아닌가. 구두는 하늘을 보고 있지만 땅을 버티고 서 있어야만 한다. 무겁게 누르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현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부츠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말발굽 같은 뒤축으로 당당하게 달려야 하고, 때로는 낮같이 생긴 그것으로 먹이를 잘라내야 한다. 풀이나 곡식을 자르는 낮은 먹거리를 갈무리하는 또 하나의 삶의 필수 도구 아니던가. 탄탄한 것도 모자라 날카롭기 까지 해야 하는 내 가죽장화는 삶의 도구이자 버팀목인지도 모른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인지 위와 아래를 잇는 부츠의 목 부분에 심한 주름이 잡혔다. 힘든 고비마다 부러지지 않으려 굽혀야만 했던 주름들은 삶이 만든 것들이리라. 어쩌면 그것은 세월이 만든 이력서일지도 모른다. 삶어도 삶어 할 수 없고 두려워도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야 했던 인생이 만든 아픈 훈장 같은 것이다.

세월 속에 몸이 삭아갔는지 균형이 불안해진 부츠는, 급하게 내딛으면 삐걱거리다 못해 헛딛대기 시작한다. 그것은 영혼에 맞춰진 구두가 아니라, 쫓기는 현실에 맞춰진 뻣뻣한 구두이기 때문일 것이다. 달콤한 비상을 꿈꾸는 가슴과 각박한 현실이 만들어 낸 균형이 어긋난 구두는 희한한 몸짓으로 넘어질 듯 세상을 달리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생은 발에 맞춘 구두를 신고 걷는 것이 아니라, 숙명처럼 정해진 구두에 발을 맞추고 걷는 것일 듯도 싶다. 각자의 업이 만든 구두를 신고 때로는 비틀거리다 넘어지기도 하며 삶이라는 녹록치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일 것이다.

검은 빛이기에 무표정한 듯한 구두. 하지만 영혼에 먼지가 조금만 끼어도, 작은 상흔만 생겨도 그것은 감출 수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다. 어쩌면 낡은 구두에는 삶에 찌든 나의 얼굴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주글거리는 구두만큼이나 힘든 구두 닦이 노인이 나의 구두를 닦아주고 있다. 굴곡진 삶의 주름으로 가득 찬 노인의 손이, 지치고 힘든 나의 영혼을 정성스레 보듬어주는 것 같다. 어쩌 보면 초라하지만 동정 어린 그의 혼이 스트레스로 굳어진 나의 삶을 따듯이 품어

주는 듯도 싶다.

삶은 흠집 많은 서로의 구두를 포근히 보듬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멍들고 패인 서로의 주름을 쓰다듬고 퍼주며 각각의 영혼이 가장 밝은 빛으로 반짝이게 하는 것이 인생인 듯싶기도 하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지치고 힘없는 서로의 구두를 감싸 주고 의지하며 더 붙여 걸어가는 것이 삶 아닐까. 어쩌면 낡고 구겨진 영혼의 구두를 정성껏 서로 챙겨주는 '구두 닦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필자: 김성환(71, 남가주) 동문 부인

**Spring**

Young C. Shin (59, Maryland)

The chilly winter is withering  
Spring is returning to the field  
The birds and bees bring the spring  
Gently they ask the winter to yield

This change shows nature's perpetuity  
It is the intimation of immortality  
It comes from the world's immensity  
It is from our Lord's generosity

We feel soft breeze from the south  
Opulent sunshine gives us warmth.  
All new lives are emerging from the earth,  
With the butterflies dancing in mirth.

Nature is getting new bloomers,  
And trees are getting greener everyday.  
Let's go out to see the wildflowers,  
Let's go out to the open-field today.

Oh, joy! My thanks and praise!

〈전면에서 계속〉 이름은 Macha, 2시간 반 승마코스는 화산과 호수 갈림길에서 화산이 구름에 덮여, 호수길을 택했다. 처음부터 제멋대로 가던 이원택님의 말은 삼시간에 호수로 직진, 오스카가 부리나케 달려와 말머리를 돌려주었다. 산길에서 전망대로 가던 다른 팀, 권영조, 강태수, 이성길 님네를 만났는데 전날 가이드가 “내일 말 타고 가다 친구를 만나면 빈부차가 확실할 겁니다.” 하던 대로 마상에서 빈한 친구들을 놀리는 재미도 쏠쏠했다. 역시 우리 발을 진창에서 깨끗이 모셔다 드린 돈의 위력... 빈부 차이는 확실했다 ππππ.



운동 후 출출하던 참에, 코스타리카 가정식인 카사도(점심 정식과 동시에 유부남 의미도 있음)를 먹고 농장에서 유가도 뽑고 사탕수수를 갈아 럼주에 섞어 마시니 온몸이 훈훈 나긋해진다. 오후는 lake에서의 뱃놀이, 화산 호수로 행했다. 배를 타고 낚시~ 허허~ 하하~ 웃음을 밀고 화산 밑까지 갔지만, 결국 전신에 구름을 두른 아래날 화산은 요지부동 몸을 내주지 않아 신선 구름 놀이에 그쳤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 있는 화산, 친구들만으로도 행복하고 재미있었다. 이제 그 유명한

타바콘 Tabacon 노천 온천장으로 발길을 돌릴 시간, 오밀조밀 층층이 만든 온천 제일 높은 곳에서 다 함께 몸을 담그고, 폭포 마사지도 받고, 즐겁던 여정이 내일이면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다. 만찬 후 식당 코너에 모여 여행 소감과 다음 여행지 등을 의논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1월 24일, 제6일: 앞서가는 그리움으로 San Jose에서 LAX행**

오늘은 무엇보다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이구아나가 가장 궁금하다. 와~ 아, 정말 Muelle 이구아나 구경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 커다란 이구아나가 열매처럼 매달린 광경은 참으로 기이했다. 징그러운 생김을 보면 분명 육식동물일 것 같은데, 나뭇잎을 먹는 초식동물이고, 이 나라는 이구아나를 잡아먹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단다. 발을 돌려 마지막 식사하러 가는 길에 들린 San Jose 시내에 있는 목조 건물, 기적의 성당은 어느 이탈리아 마을의 작고 예쁜 성당 같았다. 성당 아래 Zarcoro 나무 공원에서 전체 증명사진을 찍고, 코스타리카 농작물들을 공급한다는 산간 마을이 평화롭게 내려다보이는 산 정상에 있는 Ranch of Ceci로 향했다. 엄마, 세실리아가 시작 딸이 운영하는 유명한 식당인데, 열대 과일 주스가 입맛을 돋우고, 우리 입맛에 맞는 텔라피아 생선 요리와 비프 스테이크도 좋았지만,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 매일 먹던 콩밥 Gallo Pinto에게도 아유! 구운 바나나, 유가에게도 아유! 하고 공항을 향해 달려갔다.

단풍과 은행잎처럼 붉고 노란 빨로 꽃이 마치 가을 수채화 같은 길을 내

려가며 “코스타리카에서 콩밥 많이 먹고 갑니다.” 란 가이드님의 농담에 킁킁 지난 5일을 반추하며, 공항에 도착. 비행 일정 때문에 하루 더 묵고 떠나는 4커플의 환송을 받으며, 건강해서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자며 깊은 허그로 앞서가는 그리움을 달래었다. Pura Vida! Costa Rica! 여행 준비로 수고하신 김성환, 김일영 님, 그리고 친절한 영애 씨 감사합니다. 여행은 이기적인 것 상속은 안 된다니, 모두들 또 다른 여행길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서울 의대 우리들의 아름다운 남편들에게 제 시 한편 올립니다.

**아름다운 남자**

**토요일 아침**

앞치마를 걸치고 아내의 흉내를 내는 남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쌀 씻어 얹히고 꾸벅꾸벅 무우 썰어 쌀뜨물에 국 끓이고, 간 맞추느라 후룩 후룩거리는 어설픈 손  
서류를 만지는 손보다 더 믿음직하다

아내들이 그리운 집  
집에 없는 성공한 남자가 아니다  
옆에서 왜냐고 묻는 남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냥 설익은 선웃음에 말아 온  
말 없는 국밥 한 그릇 같은 남자

**토요일에,**

신열에 울고 싶은 그런 토요일에  
달각달각 설거지 소리로 부엌을 채우는  
그런 남자  
장미보다 아름다운 남자다

**蛇 足**

진초록의 삼림, 팔팔 흐르는 냇물, 선명한 색깔들의 동·식물, 허파를 씻어주는 깨끗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 더?) 뽕뽕한 사모님들 덕분으로 한 5년쯤은 젊어져서 온 기분이다.

요번 참석자는 남가주에서 72년도 졸업 권영조 동문을 비롯해서 71년 동기의 김일영 미주 동기회장, 김성환 총무, 양주석, 오상현, 이원택, 이창우, 미시간에서 강태수, 김유식, 이성길 및 뉴저지의 강유구까지 모두 11쌍 22명이었다.

이중 권영조, 양주석, 오상현, 강태수, 이성길은 완전 은퇴를 했고, 강유구, 김유식, 김일영, 이원택은 half-time으로 김성환, 이창우는 아직도 full-time으로 일을 하고 있다.

5박 6일 동안 잘 먹고 잘 놀고 다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 동기들이 모두 마나님 앞에서 설설 기는 것 같아 내 판에는 남권 신장을 해 보려고 공항가는 버스 속에서 “늙을수록 남자가 경제권을 잡아야 힘을 쓴다.” 고 한마디 했다가, 어부인들한테서는 ‘야만인’, 친구들한테서는 ‘저능아’, 여친한테서는 ‘주책바가지’란 말만 들었다.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동기들마저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진작에 〈남자를 이기는 법〉을 터득하고 「讚夫歌」를 지은 강학희 씨 (Mrs. 양주석)는 오랫동안 버클리 문학을 주도해 온 ‘참으로 훌륭한’ 등단 시인이시다. - 이원택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내외 동기부부 41명이 같이 여행을 즐겼다.

9월 30일 -첫째 날 인천공항이 몹시 붐빈다하여 우리 부부는 삼성동 공항 터미널에 왔다. 의외로 수속은 간단하게 끝이 났으나 즉시 셔틀 버스를 예약하였어도 무려 한 시간이나 지나야 출발하는 편이다. 올림픽도로의 반포부터 여의도 구간에는 오늘 저녁에 불꽃놀이 축제가 있어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차가 밀린다. 공항게이트에 기다리고 있으니 동기들 부부가 속속 모여 든다. 그 중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석정우 동기는 external device가 보안 검색 중 금속 탐지기에서 걸렸다고 투덜투덜 댄다. 그럴 때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긴 시간의 탑승 끝에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 하였다. 바깥의 날씨는 역시 열대지역이라 더운 날씨이다. 여기에서 일단 짐을 찾아 다시 국내선에 부쳐야 한다. 이를 잊고 있다가 짐을 늦게 찾아 애 먹은 동기도 있었다고 미리 도착한 동기가 알려와 그대로 하였으나 우리가 가는 곳은 Big island라 국내선으로 바꾸어 타야 한다. 제2건물인데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여 헤매다가 우리를 찾으러 온 체포조가 출동하여 포박해 가듯 한다. 잠시의 비행 끝에 코나 공항에 도착 하였다. 짐을 찾으니 임종운 동기의 가방이 파손되어 일단 클레임을 하기로 하고, 문제는 가방이 견고한 플라스틱 가방이었는데 깨어지고 속에 든 내용물까지 쏟아져 내려 일부는 없어 졌다는 것이다. 여행 중 가방 파손과 가방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고생한 적이 있는 나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준비된 버스를 타고 배산 입수가 아니라 뒤는 경관 좋은 골프장, 앞으로 모래밭과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가 보이는 Hapuna beach prince hotel에 도착 하다. 체크인 을 하고는 welcome drink로 열대 주스 한 잔을 들고 카드키와 저녁 식사를 안내 받았다. 짐을 정리하고 있으니 맛있게 생긴 환영 초콜릿 접시를 메이드가 들고 온다.

환영 리셉션이 열려 미국 동기들이 준비한 일정표가 뒤에 들어있는 명찰과 프로그램 등 행사용품과 색이 다른 모자와 등산용 스카프까지 선물들을 한 보따리씩 풀어 놓는다. 동기들만의 공간, 바다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홀에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그리고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진 곳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기들이 오랜만의 해후를 만끽 하였다. 이어서 계속된 저녁의 파티는 자리를 옮겨 치즈와 와인이 준비된 공간에서 정식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미주 동기회장 회장 석창호 동기의 인사말과 동기들 각자 근황 소개와 각자 건배사로 끝내었다.

10월 1일 - 여행 이틀 째

아침을 해변의 식당에서 처와 둘이서 먹는다. 앞의 수영장에서는 벌써 수영복차림의 젊은 남녀가 물속에서 놀고 있고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풍경이다. 음식은 뷔페식으로 잘 차려져 있었고 우리 옆 테이블까지 새들이 날아와 먹이를 쪼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다. 오전 골프팀은 벌써 나갔고 주일 아침이라고 김현배 동기와 박장로가 이끄는 예배 모임이 있었다. 점심은 Sunset cruise에서 멀미를 대비



서울의대 졸업 45주년 기념 하와이 여행

유 석 희(72, 한국)

해서 나는 거의 안 먹었다. 또 하나 식성이 좋은 나는 여행을 다니면서 주는대로 다 먹었다가는 돌아오면 체중이 보통 몇 킬로가 늘어나니까. 오후는 모두 같이 4시부터 8시까지 Sunset Dinner Cruise 이다. 졸업 20주년 제주 기념행사 때 풍량이 세어 거의 대부분이 멀미를 한 서귀포에서 탄 작은 배와 달리 오늘은 그래도 큰 배 이었다. 승선을 기다리는 동안 여승무원이 시원한 물들을 연신 날라 준다. 배에 올랐더니 뚱뚱한 마오리 아가씨의 춤과 원주민 아저씨의 구수한 노래를 메들리로 들려준다. ticket 한 장에 칵테일 한 잔이라 술이 부족한 김 광현은 자기 돈으로 산 와인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런데 쉽게 넘어가면 안 되지요. 자리를 옮겨 가며 바깥 경치도 구경하며 어울려 사진도 찍으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나다가 호텔로 돌아온다. 오늘 저녁 행사는 황순재의 전각 강의와 이어진 노래방이다. 정년 후 취미로 시작한 전각은 이미 수준에 올라 전번 합춘 미전에도 출품하여 구경한 적이 있다. 미국의 동기가 준비한 노래방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마이크로 졸업 35주년 알라스카 크루즈처럼 다들 닦아온 솜씨로 노래를 불렀다. 오늘 최고의 가수는 박재형, 김성숙의 듀엣으로 고향의 노래와 가지산 역세를 불렀고 양코르 곡까지 척척 받아 물방아를 부르는데 아마도 노래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지 않았던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음이 잘 맞았다. 내 노래실력을 평소 애는 나의 친구 어느 동기가 내가 부르면 자기도 부르겠다고 하였다가 그래도 직원들 따라가 배운 솜씨를 발휘하여 나훈아의 사랑을 불러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10월 2일 - 여행 3일 째

하와이 섬 일주 관광이다. 아침 식사는 우리 호텔보다 한 단계 높은 Mauna Kea beach hotel로 같은 체인 호텔인 모양이다. 커다란 앵무새 쌍이 지키는 정원을 지나 바다에서 일찍부터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아하게 식사를 즐긴다. 오늘은 관광 팀과 골프팀 모두가 같이 출발하는 섬 일주 관광이다. 아침 7시 30분에 시내 관광시작으로 6시까지 밖에서 보내고 와서 저녁을 먹는다고 한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예맨 모카와 더불어 세계 3대 커피로 이름 난 Kona coffee 농장을 들린다. 코나란 겨울철에 하와이 제도를 엄습하는 바람이다. 프랑스 남부에 불어오는 건조하고 찬 북풍으로 특히 룬 강의 델타 지대에 강하게 불어오는 미스트랄이나 우리나라의 새 바람처럼, 커피 열매를 보며, 또 커피를 맛보며 나올 때는 한 보따리씩 선물로 산다. 다음 여정을 가는 길에 숲속을 어정어정 걸어 다니는 야생의 칠면조들을 보았다. 도착한 Black sand beach는 마치 제주도의 무슨 해수욕장

처럼 검은 모래가 깔려 있다. 사진을 각자, 부부끼리, 단체로 바다를 배경으로 찍으며 모두들 즐거워 한다. 버스는 달려 자꾸만 높은 곳으로 이동하다니 닿은 곳이 Mauna Loa 화산이다. 화산의 분화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이를 배경으로 다시 단체사진을 찍었다. 점심은 버스 속에서 미리 주문을 받는다. 버스를 타고 산을 내려와 자그마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하나같이 너무 양이 많다. 1인분으로 둘이 먹어도 남을 정도. 나는 처와 하나를 시켜 둘이 나누어 먹었다. 식사 후 레인보 폭포를 구경하고 용암으로 이루어진 튜브를 걸어 들어가 반대편으로 걸어 나온다. 튜브와 굴의 구별은 끝이 뚫려 통하면 튜브이고 막혀있으면 굴 이라고 누가 말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버스는 초콜릿 판매처를 들려 시식용 초콜릿을 맛보며 또 선물로 사기도 하였다. 특히 결혼한 자식들이 있는, 즉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녀석들 주느라고 많이들 샀었고 이는 다음에 방문한 마카다미아 공장에서조차 마찬가지 이었다. 나는 와사비가 들어간 맵싸한 마카다미아를 나의 맥주 안주로 샀다.

저녁 식사 후 행사는 고석환 부인인 수원대 최고수의 지도로 춤 강습이다. 준비 체조로 몸을 풀고는 가장 기본인 왈츠로 시작한다. 역시 알라스카 크루즈에서 한 것처럼, 그때는 김재석이 강사 이었던가? 모두들 열심히 따라하나 몸치인 나는 구경만 한다.

10월 3일 - 오늘이 여행 4일 째

아침은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근사한 마우나 키아 호텔에서 우아하게 먹고, 여성분들은 shopping을, 오후의 일정 사이에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계단강의실 골방에서 즐기다가 교수님한테 혼난 마이티를 하였다. 나도 한 때는 별명이 마이티 유 이었는데. 요즘은 내 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다. 그 이유인즉 전에는 안경을 쓰지 않고도 시력이 양 눈 모두 2.0, 다른 이들이 카드 정리하느라 바쁠 때 나는 양 옆 친구의 카드를 먼저 보고, 한번 컨닝한 카드는 그대로 머리에 입력이 되었고, 또 묻는 세 장의 카드도 짹짹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두가 되지 않으니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 날도 몇 십 달러를 잃고 말았다. 점심은 일본식당에서 도시락으로 주문하였다. 멀미를 걱정하여 나는 아예 식사를 굶기로 하였다. 골프팀은 벌써 한 바퀴 돌고 와서 같이 오후 한 시경 출발하여 lava ocean boat cruise 타는 곳까지 무려 세 시간이 걸려 도착. 우리가 있는 Kona의 반대쪽인 Hilo 이다.

30년째 분출되는 용암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걸어, 자전거를 타고 구경할 수도 있으나 바다 쪽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구경을 할 수가 있었다. 애 들을 데리고 온 한국인 부부, 외국인 젊은이 들을 빼고는 이 크

루즈는 우리들이 세 상이다. 그런데 49인승의 300마력짜리 엔진 들을 장착한 보트는 파도를 맞 받아가며 타고 가면서 파도 머리에서 '퐁' 하고 떨어지면 무슨 놀이 기구를 타는 것 같다. 내 옆자리의 누가 '나 오줌 어' 또한 나는 우리 동기 부인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버린 것. 다행히 선글라스만 벗겨져 나가 찾았고 크게 다친 데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흘러내리는 용암을 보고 열기를 느

끼고 매캐한 냄새까지 맡고, 떠다주는 따끈한 바닷물에 손도 담가보고, 바다속으로 용암이 떨어질 때 내뿜는 수증기까지 불수록 장관이다. 이 여행에 참가한 우리 모두 처음 보는 풍경이다. 하나 나의 불만은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배를 타기 전 자신의 생년월일과 체중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으나 이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괜히 자신의 개인 비밀만 공개하게 된 것이다. 저녁은 Hilo 지역의 한식당 '참참'에서 모처럼 한식을, 며칠간 못 먹었던 한식을 정신없이 먹었다. 이 날은 모두들 너무 피곤하여 그대로 각자 숙소로 bye, bye.

10월 4일 - 여행 마지막 날

어제는 파워 보트의 아찔한 승선과 평생 잊지 못할 용암이 흘러내려 바다로 낙하하는 광경을 보고 골아 떨어 졌다. 새벽 배란다 밖을 내려다보니 멀리서 들리는 파도소리. 가까이서는 몇 종류의 새소리가 들린다. 해는 수평선 너머 비상을 준비 중이다. 다음 날 아침 너무 용을 쓴 탓인지 눈의 결막 하 출혈이 나타났다.

오늘의 행사는 사탕수수 관개용 운하에서 카약을 탄다(Kohala Ditch Kayak tour). 이는 비골프팀인 박장로가 주선을 한 것이다. 일단 호텔을 벗어나 조용한 시골길을 한참이나 달려 정차를 한 곳은 화장실이 있는 사무실이다. 여기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허리에 안전 부이를 매고 카약을 타러 가는 다른 차를 바꾸어 탄다. 차를 타고 가며 카약 투어를 가이드할 젊은 현지 친구가 우크레레를 뜯으며 노래를 부른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나치는 차에 탄 사람들 보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세워 흔드는데 이게 서로의 인사라고 한다. 바닷가 언덕위로 나와 구경을 하고는 개인 소유인지 울타리 문을 열고 차는 밀림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가 전에는 사탕수수 plantation을 한 곳. 건설한지 110년이 되었고 더 이상 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카약 투어는 11명 참가하여 세 대에 나누어 타고 출발하였다. 카약 1호는 유석희, 김권 부부, 2호는 박재형, 안재환 부부, 3호는 석정우 부부, 윤덕기 부인이다. 선두에 탄 사람은 헤드 랜턴을 쓰고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불을 켜야 한다. 구아바와 바나나 숲을 지나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면 새소리가 반긴다. 동굴을 10개까지는 헤아리다가 더 이상은 있어 버렸다. 우리 바로 뒤를 따라오는 카약에는 박재형 부부가 타고 오며 둘이서 잘 아는 동요를 이중창으로 부른다. 넓고 넓은 바닷가로 시작되는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부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오빠생각,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마지막으로 알로하오에와 석별의 정까지 노래 소리는 동굴을 뒹겨 아름다운 화음을 (다음면에 계속)



# 어느 날 편지를 받았다

방준재(70, 대뉴욕)

은 곳에 위치한 그린우드 세미터리 (Green Wood cemetery) 다. 매일이 다시피 출근길에 지나가는 오솔길 같은 일방통행 길이지만 자주 찾는 그곳에 묻혀 있는 60만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죽음(死)의 반대편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 좋다.

어느 환자가 그의 질환의 심각성을 얘기 했더니 되돌아 왔던 말이 생각난다. 약물이나 음식물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듯, 우리의 삶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느냐(We have our own expiration day)? 고. 되돌려 주는 환자의 말에서 또 하나의 표현을 듣는구나 하면서도 우리 삶의 유한성(有限性)에 대해 정곡을 찌르고 있구나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다, 그 주어진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마어마한 명제이다. 스스로 풀어야 하는.

이 그린우드 공동묘지에는 결혼식 날 교회에서 나오다 질투에 눈이 먼 옛 남자 친구에게 총 맞아 죽었다는 전설처럼 들리는 볼라(Volya)가 신부복을 입고 꽃다발을 안은 채 교회 층계에 실물보다 더 큰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묘지가 있는가 하면 미국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 1861-1865)에 전사한 군인들의 묘지도 더러 있다. 세월이 워낙 지나 묘비의 글씨를 알아 보기 힘들지만.

그 때 미국 남북전쟁에서 얼마만한 사상자를 냈었나? 100만 명 정도라고 답을 하고 있다. 그 남북전쟁은 원인이야 그 해석이 구구 하지만 오늘의 이 위대한 "하나 된 미합중국"을 건설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 이 위대한 미국이 기억하는 가! 6.25 사변(1951-1953)이 우리의 대한민국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하는 유행가처

럼 "이름도 들어 본적도 없고, 어디인지도 모르는(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먼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나아가서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도 개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왔던 미국이라는 사실! 그 명명백백한 사실을 한국 사람이라면 잊지 말아야 한다. K.

아무도 없는 아무도 오지 않을 사무실에 도착했다. 길 건너 공원에도 비가 와서 그런지 오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공원에도 비만 내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엮고제 받은 편지를 읽고 있다. 정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없는 그런 노(老)신사다. 자기 소개에서 나보다 10여년이나 선배님이시다. 서울 공대를 나오셨다 했다. 언젠가 나의 글 "아~ 제주도"를 읽어 보셨나 보다. 자신은 제주도에 가 본 적은 여태 없지만 북한에 있을 때 끌려가 "제주폭동(Jeju Uprising 1948-1949)"에 특과필 특공대 훈련을 받았다면 당시 열심히 부르던 군가(軍歌)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평창에서는 제23회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평화의 이름하에 북한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애국가도 들리지 않고, 태극기도 보이지 않고, 나라 이름도 바꾸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에 슬픔만 찾아들고 있다. 저 미국의 남북전쟁보다 더 많은 생명을 바치고 천만의 이산가족, 국토가 초토화 되던 역사를 갖고 있는 한반도. 언제, 우리는, 속으로 뇌이며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언제 내 조국, 대한민국에는 봄이 오려나? 물으며 가슴만 조이고 있다.

비가 온다.  
또 비가 온다.  
추운 겨울 2월에 봄비처럼 오고 있다. 길을 나섰다. 사무실 일도 없고, 병원 입원 환자도 없는데 또 길을 나서고 있었다. 일요일, 길 위에는 지나가는 행인들도 자동차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봄비 같은 겨울비만 철철 내리고 있다. 바깥 온도는 화씨 48도를 가리키고 있다. 영락없는 봄 날씨다.

일요일 아침, 비 오는 거리를 슬슬 드라이브 했다. 지켜야 할 약속도 없고, 모아야 할 환자도 없는 그런 날, 비 오는 동네 구경삼아 서서히 가고 있었다. 하기사 오른쪽으로는 주택가, 왼쪽으로는 허드슨 강이 보이는 그런 길이지만 주행속도를 시속 25마일로 규정해 놓았다. 꼭 그 주행거리를 맞추려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도심에서 "Slow Life"랄까 그런 걸 맛보고 싶었다. 그리고 차창으로는 봄비처럼 온화하게 비가 내리는 아침,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양상한 가로수에도 비는 내리고, 그 사이 사이로 허드슨 강물이 보이고 있었다. 추워야 할 겨울 2월에 봄비 같은 비가 내리고 나는 그 양상한 겨울나무들에서 움이 돋는 걸 보았다. 그것은 환시(Visual hallucination)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피어오르는 춘(春) 3월의 바람 이었다.

하기사 이제 2주일 정도만 지나면

봄이 온다는 3월이다. 시인 셸리(Percy B. Shelley, 1792-1822)의 말처럼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라 했듯이 나는 겨울이 오면 봄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K.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헤아리면 봄을 기다린다. 세월이 가면 그만큼 나이 먹는 것은 생각치도 않고 또 한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봄은 정영 여기 와 있겠다.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삶 전 과정을 자연의 4계(季)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버릇이 있지만 아득히 지나간 우리 삶의 봄은 아득히 저 멀리 지나가 버렸어도 그 봄의 기억만큼은 초롱초롱히 남아 있다. 그 젊었던 봄(春)의 시절을 추억하고 그 때 나는 무엇을 했고, 그 때 나는 무엇을 생각 했는가? 많은 글도 써 보았다. 그 생각 속에는 항상 같이 생활을 공유했던 여인(女人)들이 생각나고, 무엇이 되고 싶었던지,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듯하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명제(命題)에 침몰되어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는지 여쭙해 보고 있다. 그 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여인(女人)이 있었고, 반주하고 반주하는 지난 나날 이었는지? 겨울의 양상한 나뭇가지에 열리는 파릇파릇한 새순을 보다 또 한적한 공동묘지를 끼고 도는 길 위에 섰다. 브루클린의 가장 높

〈전면에서 계속〉 만들었다. 비록 엉덩이는 흠뻑 젖었지만 흐르는 물에 카약을 맡기고 5킬로 거리를 한 시간 반 동안의 뜻 깊은 경험이었다.

**오늘 저녁은 마지막 날 farewell party** 이다.

개회사에 이어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동기들을 위하여 묵념을 올리고,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아 가사도 잊어버린 서울대학교 교가를 친절하게도 프로그램 한편에 인쇄를 해두어 따라 불렀다. 미주 동기대표와 한국 동기 회장 김상준 대신 총무 박주철 동기가 인사를 마치고는 골프대회 시상식에서 이런 좋은 골프장에서 좋은 계절에 좋은 친구들과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상 받을 일이지만 그래도 성적을 보면 메달리스트는 황순재, 통기스트 장병호와 박주철 처로 역시 키가 커야 멀리 칠 수 있는 모양이다. 이어서 준비된 졸업 45주년 기념이라고 쓰인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참가자 모두 함께 기념촬영을 마쳤다.

지난 30주년 기념 만찬에서 박재형 장로의 훌륭한 기도로 우리들의 3박 4일 용평행사가 아무런 탈도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지요. 다음 날 우리가 묵었던 용평리조트의 호텔은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었지만, 오늘의 기념만찬 식사도 박장로의 기도로 시작한다. 간략을 하면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197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45년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고치며 도와주며 귀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학창생활을 한 동기들과 우정으로 맺어주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며 생명을 이어갈 손자녀도 주시고 건강과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5박 6일의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에서 즐거운 재회를 하며 미주동기들의 수고로 모든 일

정을 잘 마치고 이제 송별의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에 보우하사 우리나라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추억을 잘 간직하며 또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즐거운 만찬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격려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건배까지 마치고는 호텔에서 정성껏 마련한 만찬에 들어간다. 메뉴는 grilled asparagus salad로 시작하여 sweet butter을 곁들인 freshly baked dinner roll이 나왔다. Entree는 누구나 들 중의 하나는 좋아하는, 그러나 먹보들은 둘 다, surf and turf로 오늘 surf는 beef tenderloin, 그리고 turf로 pacific lobster tail 이었다. 그리고 디저트는 strawberry short cake과 축하기념 케이크 한 쪽도 맛보았다. 마지막으로 tea and Hawaiian blended regular coffee 로 마감을 하였다.

이어진 여흥의 Program을 적어 보면

1. Dance: 고석환 부부가 먼저 애절한 가사가 눈물겨운 테네시 왈츠를 정석 무도회 복장으로 멋들어지게 추었다.
2. Duet: 우리 동기의 아마추어 가수 부부로 김광현, 이경희 부부의 이중창은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3. Saxophone 연주: 백근수 부부는 알토와 테너 두 대의 색소폰을 공수해왔다. 호텔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 마지막 날만 겨우 연주를 할 수가 있었다. 연주한 곡목은 진주만에서 진주 조개잡이, 오블라디 오블라디, 사랑의 트위스트와 마지막 곡으로 흥도야 울지 마라.

백근수의 이야기는 '우여곡절 속에 JBL 스피커와 400W급 앰프를 단돈 \$250에 빌릴 수 있었으나 나이를 먹으니 코드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몰

라 라바 크루즈에서 늦은 밤 도착해서 다들 잠자기 바빴지만 집사람과 나는 빌려온 것들을 이벤트 홀로 옮기고 연결을 하느라 새벽 1시까지 몸부림치다 결국은 실패하고 지쳐서 숙소에 가서 자고 다음날 자유시간에 놀러가지도 못하고 다시 시도하던 중 다행스럽게 작동이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빌린 것부터 연결, 작동에까지 나한테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대목이었습니다.'

4. Dance: 김재석 부부의 느린 4박자인 볼레로를 Andy Williams의 우리가 다 아는 슬픈 이야기인 Love Story theme music으로 정감있게 표현하였다.
5. 독창: Mrs. 이종윤의 '석별'을
6. 백조의 호수 중에서 석창호 부부의 영터리 발레는 마지막 일부러 쓰러지는 장면까지 폭소를 자아내게 하였다.



Mauna Loa 화산

우리나라의 동기들은 아직 대부분이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참석한 국내의 동기들은 건강, 시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동기들이지요. 이와 달리 미국 동기들은 넉넉한 연금으로 대부분이 은퇴를 하고 추운 북쪽에서 내려와 플로리다의 올랜도와 LA 부근에서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다. 개업을 하는 친구들은 병원을 그만둘 때 주체 못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골프도 바쁜 생활에서 잠깐의 짬을 내어 칠 때는 즐겁지만 늘 골프만 치고 시간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은퇴 후 생활

은 사회활동과 취미생활, 배우는 것도 좋고.

국내에서 은퇴한 우리 동기들은 한 인교는 전원생활을, 고석환은 춤을 배우고, 황순재는 서예와 전각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나는 현재 환자는 보질 않고 임상연구 수탁 중재기관(CRO)에 주 3일간 나가며 여러 취미 생활로 여유를 즐기고 있다.

45주년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이곳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동기들이 여러 정보를 주고받았고, 예를 들면 호놀룰루 공항에서 짐을 반드시 찾아 다시 코나 공항으로 부쳐야 한다는 것 등, 또 여행사와도 참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였다. 앞으로도 폐쇄를 하지 않고 계속 이용을 할 작정이다.

의사들의 모임 특성 중 하나는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이다. 이번 행사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고, 석선생 부인의 맹활약으로 미팅룸 한 곳을 잡아서 호텔의 갖은 서비스를 받으며 여러 행사를 치를 수가 있었다. 감사에 또 감사를 표한다. 하나 마지막으로 내가 명명한 독감인 Hawaiian flu가 밀어 닥쳐 동기들 몇 명이 고생을 하였다. 것이다.

추가로 내가 참여하지 않은 골프 후기를 부탁하였더니 "골프는 본질적으로 후기가 어렵습니다. 다 같이 모여 하는 활동이 아니고 각자는 다른 상황과 다른 심리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술하기는 무리입니다. 한 팀에서도 지옥과 천당이 같이 존재하지요. 골프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크게 기술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인생보다 더 인생답다.'라고 하지요." 방성호 동기의 글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5주년 행사는 기술한 바대로 성공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번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50주년 행사와 관례에 따라 55주년 행사가 미국에서 개최되었지요. 아무쪼록 동기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 영문이름 수난

한(이)혜원 (61, 필라델피아)

1963년 도미준비를 할 때 이름을 영문으로 바꾸어야 했다. 내 이름 혜원의 '혜'는 한국식으로 히(hi)에(e)니까 hie (혜)won으로 썼다. 그런데 영어로는 ie (에, 이)가 '아이'로 발음된다는 것을 깜빡 잊었다. 결국 내 이름 Hie Won은 하이원 아니면 히-원으로 불려진다. 그것도 괴로운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first name and middle name식으로 won을 middle name으로 단정하고 Hie W.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가 한 달을 생각하셔서 지어주셨다는 이름이 미국에 와서 엉망이 된 셈이다. 옆집 마나님은 나를 처음 소개받을 때 속으로 '아! 타이완(대만)과 비슷하네'하고 기억했던 것 같다. 후에 만나자마자 "하이! 타이완" 해서 영 기분이 그랬다. 고쳐주긴 했지만 그 머리에 기억하기 쉬웠으랴. 후에는 그냥 하이 하기만 한다.

벌써 옛날이 된 어느 겨울 스키를 타러 갔다가 레슨을 받기로 하였다. 스키를 배우고자 하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란히 줄을 섰다. 선생이 한 사람씩 빨리 빨리 이름을 물었다. "Susan, Ann, Nancy..." 내 한국이름은 주어도 기억 못 할 텐데 하는 사이 벌써 내 차례가 와서 얼떨결에 "Helen" 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잊고 있었다. 선생이 간단한 설명을 끝내고 나서 각자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대로 한사람씩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라고 지시했다.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의 여자가 나에게 안타깝다는 눈치로 "Hi, he is calling you" 라고 알려주었다. 그 순간 선생이 멀리서 큰소리로 "Helen, Helen!! Your turn, go down" 하는 명령이 귀에 울려왔다. 무안하고 당황하여 곧장 언덕 밑을 향해 스키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차! 저 멀리 밑으로 내가 지금 내리 달리고 있는 그 아래쪽에서 꼬마들 몇이 스키를 타고 있지 않나! 그들을 피하느라 서투른 실력에 급히 옆으로 꺾으면서 거기 세워놓은 나무판자를 쳤다. 그것이 넘어지는 바람에 나는 그 밑으로 깔려버렸다. 나의 스키레슨은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였다.

미국시민권을 얻을 때는 영어이름을 하나 가져야 한다고 다들 말해주었다. 무슨 이름을 가질까, 내 이름이 은혜(惠)자니 Grace로 할까, 그러나 그 이름은 너무 흔한데... 아! 옛날 내가 fellow할 때 동료 중국의사가 나를 "이원, 이원" 하던 생각이 났다. 그래서 Yvonne으로 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어쩐지 나 같지 않아 별로 쓰지 않았는데 미국인 동료는 내가 가슴에 달고 다니는 이름표에 Hie-Won Yvonne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느새 보아 두었던지 쉬운 쪽을 찾아 "이본"이라고 부른다. 기특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이름 같지 않아 서먹서먹하다. 그러나 전에 유럽 여행 때 동행하던 미국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편하도록 Yvonne 이라고 나를 소개했다. 그렇게 해 놓고도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 딸애들이 "Mom, she is calling you" 하고 나면 당황해서 응답하곤 했다.

몇 년 전에 이제부터라도 논문 쓸 때 기억하기 쉽게 얻은 영어이름으로 바꾸어 쓸까말까 했었다. 그런데 내

여자 동료가 어느 meeting에서 돌아와서 "혜원아 글썸 강사가 네 paper를 인용하면서 "Dr. Hann said" 하더니 다음에는 he said, he said해서 속으로 여보시요 she 입니다. 했다고 하면서 웃었다.

한번은 토론 중에 여자 화가 친구가 여자이름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충고해 주었다. 자기는 그림을 사인할 때 first name을 그냥 initial로 쓴다고 하면서 여자이름을 쓰면 그림이 잘 안 팔린다고 했다. 오히려 gender를 알 수 없는 외국이름이니 남자로 인정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이롭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름을 여성화 하는 것은 그만 두고 내 예쁜(?) 이름(옛날 서당(書堂)을 경영하시던 한문학자 할아버지가 지어주신)을 중간에 잘라서 훗척하게 만들지 않도록 hyphen으로 부쳐서 Hie-Won으로 썼다. 그랬더니 내 동생 혜성교수는 꼭 중국인 이름 같다 해서 걱정되었지만 미국에서 중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동양인인데 하고 그냥 쓰고 있다. 이제는 Hie W로 되는 일이 훨씬 적어졌다. 그래도 가끔 Hie W. 하고 편지가 오곤 하여 순간적으로 불끈하지만 그들이 일부러 하는 일은 아니니 안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스톤에 와서 처음 근무하던 병원에 Dr. Lee가 여러명이 있었다. 게다가 중국의사까지도 하필이면 Dr. Li, 심지어 병원장도 미 남부출신으로 Dr. Lee였다. 남부사람들은 General Lee와 결부하여 last name Lee를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Dr. Lee가 여러명 있으니 page에 응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한(韓)씨와 결혼하게 되어 기꺼이 남편성으로 개명하였다. 사실 그 당시(1996년)의 여의들은 모두 남편 성을 쓰고 있었다. 그때 과장도 결혼하면 이름을 바꿀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Hann과 Hahn은 서양사람에게도 있어서 어느 때는 오해도 받는다. 한번 Telephone operator와 대화 중 날보고 독일 액센트가 있다고 독일에서 왔냐고 묻던 때도 있었다.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보면 성 하나로 선입견이 있게 되는 일이 많다. 벌써 오래전 시계탑에 실었던 이운순 선배님의 글이 생각난다. 젊은 여인 4명의 사진을 놓고 각자의 미, 성격, 지능도를 쓰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얼굴 밑에 이름 (영국, 독일, 폴란드, 라틴 계통 등의) 을 쓰고 다시 판정하라고 했더니 판정도가 많이 다르게 나왔다고 했다.

서양에는 last name이 다양하여 first name이 흔한 것이라도 구별이 된다. 한국은 last name이 몇 가지 안 되니까 같은 성이라도 본이 달라서 분별을 하고 게다가 first name을 두 글자로 구성하여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구별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1세대들은 미국 생활을 쉽게 하느라 서양이름으로 새로 짓기도 한다. 그리고 2세의 first name은 의례 미국 이름이다. 그러다 보니 last name이 몇 개 없는 데다 first name도 몇 개 안 되니 전화번호 책을 보면 David Kim, John Lee들이 얼마나 많은지! 게다가 한국인 1세대들의 first name을 중간에 잘라서 김영호, 김영숙, 김영환, 김영길 등의 특별한 뜻을 가진 멋있고도 다양한 fist name이 그만 간략하게 잘리어 Young Kim이 되는 일이 많으니 전화번호에 같은 이름이 거의 한 줄을 차지하는 일도 많다.

또 한국의 성(姓)을 다르게 쓰는 것도 재미있다. 김씨를 Kim, Kimm, Gimm, Ghim, Gymm, 신 씨는 흔히 쓰는 Shin 외에 Shinn, Cynn, Synn, 심지어 Sin으로도 써서 당황하기도 한다. 하기는 미국인 이름들 중 Love는 그래도 좋지만 Money나 Slaughter로 쓰고

# “나도” (#MeToo) 의 고발

허선행 (64, 대뉴욕)

근래에 세계 어디서나 터지고 있는 “나도”의 고발을 강자와 약자 아니면 갑질과 을질(?)의 대결이라면 잘못된 표현일까!! 그렇다고 단순한 고발도 아니기에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쉽게 끝날 아니면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인간 본능에서 오는 문제이기에 더 심각하다고 보면서 나대로 몇 자 적어 보고 싶어졌다.

우선 우리가 사는데는 늘 Predator and Prey(우리말의 적절한 표현을 몰라서)가 있어 왔고 우리 인간 자체가 가장 무섭고도 잔인해 왔으면서 아직도 그러하거늘, 실제로 모르고 아니면 모르고 살게 세뇌가 되어 온 것으로 본다. 그런 와중에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predator로서 지금껏 살생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변명하면서 용서와 자비와 또 은총을 빌면서도 뒤로는 강국은 약국을 침범하고 약탈과 살생을 저지르면서 인류 역사는 흘러왔는데 이런 가운데 승자는 왕, 왕족, 귀족이 되면서 이들에게 그 땅위의 모든 것이 자기들 소유였으니 땅만이 아니고 사람도 그들의 소유 재산이 아니었던가!!!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의 행패(주로 남과 여, 남과 남, 여와 남, 남과 남, 여와 여)는 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전정 전후로 있었던 계급사회, 특히 귀족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 놓고 여성들을 농락했어도 불평을 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자식을 낳아준 여인은 노비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 자식은 후레자식(bastard)으로 천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실은 동서양이 상통하는 점이었다.

심지어 공자의 유교사상으로 윤리와 도덕을 국시로 알았던 이조시대에는 전반적인 여성 비하로 여성 학대는 물론 여성에 대한 성적 농락과 학대가 심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런 역사적 풍조가 현대에도 모든 갑질 (정치인, 연예계 인물들, 기업인, 교수 등)들에게 전달되어 온데 가중해서 어떤 유전 인자와 HORMONE 수치가 상승효과(synergistic action)를 일으켰다고 본다.

이런 사실이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나의 단순한 의문의 하나는 왜 갑질들의 사무실에는 늘 젊고 반반한 여인들이로만 꽂 차있는지!!!! 아들 딸 둔 우리 모두 진지하게 심사숙고 해보아야 될 일 중의 하나이면서도 이 “나도”의 현실이 100% 갑질들의 총동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너도 갑질의 한패”라고 비난할 여인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내가 예측하건데 앞으로는 “#Me-too”에 저촉 안 되는 새로운 길을 갑질들은 찾아 낼 것을 두려워 해 보지만 우선 끝까지 발뺌하는 갑질들의 속죄와 반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 옛날 도장

서 량 (69, 대뉴욕)

안개 낀 새벽 잠결, 아들놈 대학 졸업장이 벽에 걸려 있는 빈 방 모퉁이 책상 서랍 속 달걀 모양으로 찍히는 내 도장이 부스스 눈을 뜬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섬뜩하게 진한 주홍빛 도장밥 찌꺼기가 뺨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철부지 청년이 마냥 웃고 있네 여드름 자국 높은 해상도 환히 보이는 어리석음, 네모반듯한 목재의 공간에 마음 놓고 누워 뒹구는 자제 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진정한 자아라는 건 정말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럴 의도가 추호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른 아침 안개 걷힌 팰리세이즈 파크웨이 과속으로 달리는 출근길 아스팔트 바닥,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도장이 나나 내 아들의 얼추 가름한 얼굴 모습으로 줄줄이 찍힌다

월간 <우리詩> 2018년 4월호에 게재

도 본인은 담당하다. 한국인의 성 노(盧, 魯)씨는 No, Noh, Roh, Row, Lowe 등으로 써서 어느 때는 서양인인가 오해할 때도 있다. 최씨의 Choi는 참으로 괴롭다. 그 좋은 성이 너무나 아깝게 중국이름처럼 되었으니, 그래서 Chae, Chai, Cheigh, Che, Cheh, Tzeh 등의 고민의 노력이 보인다.

그래도 간단한 한국이름은 동명이 많게 되더라도 감사한 일이다. 인도사람 이름이나 태국사람의 이름을 보자. 어떤 이름은 너무 길어서 한참 보면서 베껴야 하고 아무리 외우려해도 외우기 힘들고 더구나 발음하기도 힘들어 참으로 당황할 때가 많다. 그런데 요즈음 아랍 이름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TV나 Radio 나나운서들이 척척 발음해주는 것을 들을 때는 역시 노력해서 외우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고 깨우치기도 한다.

사실 북유럽인의 이름, 체코나 폴란드 계통의 이름들도 어떤 이름은 자

음이 겹쳐있어 부르기도 외우기도 곤란할 때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옛날 외국에서 들어올 때 이름이 너무 힘들면 이민국 직원이 간단히 바꿔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내 동료 의사는 자기 할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으로 이민 왔는데 발음을 알아듣지 못한 이민국 직원이 “August”로 써버렸다고 했다. 영어를 못하는 자기 할아버지가 손짓 발짓으로 이름의 뜻이 8월 이라고 했던 모양이라고 Dr. August가 웃으면서 얘기했다. 한 남미에서 온 이민은 자기 이름의 뜻이 달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네 이름은 이제부터 “Moon” 이라고 하라고 이민국 직원이 써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중 역사적인 개명이라면 “Kalogeropoulos”를 “Callas”로 바꾸어 이민국에 등록한 Maria Callas의 아버지 George Callas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

여하간 이래저래 영문이름의 수난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오더니 느닷없이 아프리카 구경을 가져와 준다. 나의 대답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안 돼.” 그런 먼 오지에 갔다가 병이라도 얻으면 어쩔 것인가. 에이즈, 에볼라 등 무시무시한 병들이 있고,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한동안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온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기 까지 했었다. 불결한 환경 속에서 무슨 병이 걸릴지 알지도 못할 것이다.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든 일이다. 아내는 비행기에서도 잘 자지만 나는 비행기를 타면 대개 한숨도 못 잔다. 꼭 끼는 자리에 앉아 장시간을 간다는 것이 내에게는 끔찍한 고문이나 다름이 없다. 정치상황도 불안하여 쿠데타며 반란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얼마전 신문에서는 학교 여학생들을 집단 납치하여 생사도 모른다고 했다. 관광객이라고 안전할 것인가.

아내는 끈질겼다. 자기는 아프리카를 꼭 한번 가보고 싶고 지금 못가면 더 늙으면 영영 못 간다고 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고 했던가? 장시간 반복되는 파상공세에 나의 마음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무사히 다녀오기만 하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것 같았다.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동지를 규합하여 여럿이 간다면 좀 더 의지가 될 것 같았다. 여행을 좋아하는 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같이 가지 않겠느냐 물어봤다. 그러나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마디로 싫다고 한다. 자기는 National Geographic 이나 보고 만족 하겠다고 한다.

여행사에도 문의해보니 다녀온 사람들이 좋았다고 하고, 뭐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 그렇게 나쁘겠냐고 한다. 같까 말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앞치락 뒤치락 하다가 “비장한” 각오로 신청을 했다.

신청을 하고나니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고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수소문하여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으려 하니 예방주사 만드는 회사에 불이 나 약이 품귀라고 한다. 할 수 없이 먼 곳까지 가서 주사를 맞았다. 아내는 거침없이 팔을 걷어 붓치고 주사를 맞았다. 약 부작용이나 의학에 감감한 아내는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듯 했다. 주사 맞기를 싫어하고 온갖 의학지식이 꽂차있는 나는 주눅주눅하다가 할 수 없이 맞았다. 아내는 멀쩡했고 나는 2-3일 약한 몸살기를 느꼈다.

시카고에서 두바이(UAE: United Arab Emirates)까지 14시간 걸렸다. Emirates Airline을 처음 탔는데 Boeing 777 새 비행기였다 서비스도 좋았다. 아내는 일찌감치 불을 끄고 곤히 잠들었다. 아하 내가 불침번을 서주니 안심하고 잘 자는구나. 알뜰기까지 했다. 가지고 간 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영화 목록을 보니 한국영화도 여럿 있었다. 택시 운전사, 군함도, 등등 그간 말로만 듣던 영화들을 무려 여섯 편이나 내리 보고 나니 두바이에 도착하였다. 공항 근처 호텔에서 잠깐 눈을 붓치고 샤워를 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여섯시간 걸려 케냐의 나이로비에 도착했다. 마침 퇴근시간이라 길이 꽉 메었는데 교통 혼잡이 시카고를 뺄 정도였다. 나이로비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또 한밤을 잤다. 창밖을 내다보니 나이로비는 큰 도시였다. 사람들이 때를지어 걸어서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침에 차를 타고 케냐-탄자니아 국경도시인 나망가로 향했다. 가는 도중 나이로비 외곽지대와 시골 풍경들을 내다 볼 수 있었다. 도심에는 고층건물들이 즐비했으나 외곽지대로 갈수록 초라한 풍경들이 들어왔다. 자연풍

경은 아름다웠다. 후라이판으로 내려쳐 머리가 납작해진 것 같이 보이는 나무들이 띄엄띄엄 있었다.

나망가의 출입국 통제소에서 100불을 내고 탄자니아 입국 비자를 받았다. 비능률적인 사무처리에 시간이 좀 걸렸다. 다시 차를 타고 두 시간을 더 가서 아루샤 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여기서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가는 경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반 가량 비행했다. 가는 도중 경비행기 창밖으로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 산 (16,000ft, 4,900m)을 볼 수 있었다.

돈좀 벌면 아내를 더 얻겠다고 한다. 남자들은 지팡이 같은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데 무엇에 쓰느냐고 물으니 동물들을 모는데 쓴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다.



가는 도중 Oldubai Gorge에 들렀다. 이곳에는 Museum이 있는데 가장 오래

# 아프리카 기행

노영일(68, 시카고)

아프리카에 만년설이 덮인 산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이 생각났다. 헤밍웨이는 사냥을 좋아해 이곳에 여러 번 왔고 경비행기 추락 사고를 두 번이나 당해 몹시 다쳐 말년까지 고생했다고 들었다.

집을 떠난 지 무려 3일 만에 드디어 세렝게티에 도착했다. 세렝게티는 30,000평방 km (12,000 평방마일)의 방대한 지역으로 동물들의 낙원이다.

Safari 차량은 랜드로버 같이 생긴 차인데 6-7명이 탈수 있었다. 창문으로 내다 볼 수도 있지만 천장이 열려 사진 찍기에 편하게 되어있었다.



Serengeti에는 얼룩말(zebra)과 Wildebeest(소 비슷한 영양)들이 가장 많고 이들은 항상 같이 다닌다. Zebra는 긴 풀을 먹고 Wildebeest는 짧은 풀을 먹어 먹이의 경쟁이 없고,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므로 상호 보호를 한다. 사자, 코끼리, 기린, 하마, 물소, 표범(chetah), 하이에나(Hyena)도 많다. 표범(Leopard), 멧돼지(War-thog), 원숭이(Baboon), 야생 개(Wild dog)도 가끔 본다. 사자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영양(Gazell)도 많다. Rhino(코뿔소)는 매우 희귀하다. Serengeti에 45마리 정도 밖에 없다고 한다. 한번 짹짹 시작하면 2시간 반 동안 한다고 하며 그 콧뿔이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나 마구잡이를 하여 지금은 멸종상태에 가까와 있다고 한다. 콧뿔에 GPS tracer를 달아놓고 렌인저들이 상시 동태를 감시한다.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달려가 사냥꾼들에게 당하지 않았나 확인한다.

식민지 시절 유럽인들이 소위 Game Drive Safari 로 Big Five(사자, 코끼리, 코뿔소, 표범, 버팔로)를 누가 많이 잡는가. 내기를 하며 마구 잡았다고 한다. 특히 코끼리의 상아와 rhino의 뿔을 잘라 내다 팔았다.

숫사자는 대개 영역을 지키고, 암사자가 사냥을 하고 새끼들을 돌본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분주히 사파리 차를 타고 Park로 나갔다. 동물들은 대개 아침 일찍 기어 나와 먹이를 먹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야 많은 동물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세렝게티를 다시 한 바퀴 돌고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옹고롱고로(Ngorongoro) 분지를 향하여 떠났다. 가는 도중에 마사이족 부락에 들렀다. 이들은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국경도 아랑곳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었다. 아직도 일부다처제로 살고 있다. 안내한 젊은이도 28세라는데 아내가 둘 밖에 없다고 한다.

된 인류의 유골이 전시되고 있다. 올두바이 계곡에서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였나 하는 생각을 했다.

Ngorongoro에도 많은 동물들이 있다. 이곳은 고대에 화산 분화구였는데 지금은 방대한 분지로 되어있다.

사자들이 물소를 잡아먹고 있는 약육강식의 준엄한 현장도 목격을 했다. 사자들이 사파리 차량 옆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닌다.

얼마쯤 떨어진 곳에 사자 한 쌍을 보았다. 사자들은 짹짹 때가 되면 암놈과 가장 강한 숫놈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단 둘이서 Honeymoon을 즐긴다. 교미를 매 15분 내지 20분만 하는데 교미시간은 10-20초라고 한다. 이렇게 무려 7일간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사냥도 안하고 먹지도 않고 오직 그 짓에만 몰두 한다고 한다. 숫놈이 지쳐 나가떨어지면 암놈은 다른 숫놈을 취한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모든 생물의 기본은 자체보존과 종자 번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먹고 짹짹하는 것이다. 조물주는 이 원초적인 본능에 가장 큰 쾌감을 실어주어 자신이 창조한 세계가 영구히 유지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Hippopotamus(하마)는 피부가 약하여 강한 태양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밤에는 육지로 기어 올라와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크고 무지무지하게 생긴 놈이 초식동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Hyena는 초원의 scavenger다.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다 남기면 이들이 깨끗이 먹어 치워 버린다. 턱 힘이 어찌센지 뼈도 부셔 버린다고 한다. 때로 물려다니며 어미가 없을 때는 사자새끼들도 잡아먹는다고 한다.

초원 한가운데 사람 같은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은 Kori Baspard 라는 새인데 숫놈이 암놈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다시 Arusha를 거쳐 케냐의 나이로비로 돌아왔다. 우선 이곳 대장금이러는 한국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 나이로비 시내를 잠시 둘러 보았다. 나이로비는 큰 도시였다. 비행장에서 백인 여자가 앉아 있길래 혼자서 케냐에는 뭘 하러 왔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케냐 사람이라고 한다. 부모는 영국 사람이지만 자기는 케냐에서 태어났고 케냐 국민이라고 한다. 케냐는 영국 식민지였고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Safari Park라는 호텔에 여장을 풀고 몇 시간 휴식을 취했다. 이 호텔은 시설이 좋았다. 한국사람 소유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나 Manager 사장은 아직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

저녁때 디너쇼를 하는데 흑인 여자가수가 한국가요를 정확한 발음으로 한국 여자처럼 노래했다.

낙타 고기요... 긴 꼬챙이에 고기를 꽂아 구어 식탁에 갖와서 잘라준다. 낙타, 타조, 악어, 멧돼지, 사슴 고기 등을 서브 한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요구하면 된다.

디너쇼는 격조 높고 훌륭한 쇼였다. Exotic 하고 예술적으로 보였다.



다음날 아침 마사이 커피공장에 구경을 갔다. 케냐는 품질 좋은 커피로 유명하고 가장 큰 이 회사의 사장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

케냐 시내 노점시장에 들렀는데 일종의 벼룩시장(Flea market) 같았다. 소매치기가 많다고 엄중 경고를 하여 지갑과 여권을 손에 꼭 쥐고 다녔다.

나이로비 외곽 교외에는 Karen Blixen Museum이 있다. Karen Blixen (1885-1962)은 덴마크 여류 작가로 자기의 자서전적 소설 "Out of Africa"로 유명하다.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탈 때 자기보다도 Karen Blixen이 타야 마땅하다고 했다고 한다. 바로 이 장소에서 유명한 Out of Africa 영화도 촬영하였다. 그녀는 결혼후 케냐로 이주하여 집필생활과 커피농장을 경영하며 살았다. 바람둥이 남편은 그녀에게 성병만 옮겨주고 늘 나돌아 다니다가 결국 이혼했다.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했던 그녀를 구해주어 가까워진 데니스(영화에서 로버트 레드포드 분)는 그녀가 진정 사랑했으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는다. 커피농장도 화재로 타버리자 덴마크로 다시 돌아왔으나 매독과 그 치료를 위하여 과용한 Mercury, Arsenic 등 부작용으로 죽는다.

제8일에 Kenya의 Nairobi 국제공항에서 Kenya Airline을 타고 3시간 반 걸려 Zambia의 Livingstone으로 갔다.

Livingstone 상공에 이르니 무슨 연기 같은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알고 보니 Victoria Falls에서 나오는 물보라였다. Victoria Falls는 총면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이다. 더구나 우리는 우기(雨季) 끝날 때쯤에 가서 그 수량(水量)이 대단했다. Victoria 폭포는 Zambia와 Zimbabwe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공항에서 긴 줄을 서서 100불을 내고 입국 비자를 받았다.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국제증명서인 yellow card도 검사했다.



물보라가 어찌 거센지 마치 태풍 속에서 있는 것 같았다. 관초를 입었으나 속옷까지 몽땅 젖어 명실공히 물에 빠진 생쥐 신세가 되었다. 사진을 찍으려다 카메라도 몽땅 젖었다. 내 싸구려 카메라가 망가지면 어쩌나 걱정을 했다. 저녁때 호텔에 와서 드라이어로 조심껏 말렸다.

빅토리아 폭포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의사/탐험가인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David Livingstone에 의하여 1855년 서구에 처음 알려졌다. 헬리콥터를 타고 구경을 하려고 돈도 다 내고 체중도 달고 주의 사항까지 브리핑 받았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과 일진광풍이 몰아쳐 헬리콥터가 뜨지를 못했다. 잠시 기다리면 소나기가 지나갈 거라고 하는데 다음 일정 때문에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다.

국경을 넘어 Zimbabwe 쪽으로 갔다. 여기서는 입국신고만 하고 간단히 비자를 받았다. 이곳에도 Livingstone의 동상이 있었다. Zimbabwe 쪽에서 보는 Victoria Falls는 더 웅장하고 커 보였다. 물보라도 굉장했고 폭포 소리가 귀를 멍멍하게 한다. 폭포아래 까마득한 강으로 떨어져 흘러간다.

Zambezi 강 크루즈를 하면 석양이 아름답다고 하여 나갔는데 구름이 끼어 sunset을 보지 못했다. 강에는 하마들이 많았다. Boma 식 야생고기 바비큐를 먹었는데 Impala, Warthog, 악어, 타조 고기 등이 나왔다. 식사 중 민속 음악, 춤을 보여 준다. 호텔시설은 좋았다.

다음날 Botswana 국경을 넘어 Chobe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Botswana는 아프리카 국가 중 GNP가 가장 높다고 한다. 나는 남아공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는데 Botswana가 일위이고, Kenya가 2위, 남아공은 3위라고 한다.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Botswana의 Chobe 강 River safari에서는 사슴, 도마뱀, 악어, 물소, 하마, 각종 물새들을 보았다. 강 건너 쪽은 남비아였다.

Zimbabwe의 Victoria Falls Airport에서 South African Airway를 타고 3시간 걸려 Cape Town에 도착했다.

Cape Town은 Mother City라는 별명이 있다. 대항해 시절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오가던 배들이 Cape Town에 들러 식수, 식량, 등을 보급 받고 갔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의 품같이 느껴질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지금은 절수 운동이 한창이다. 한사람이 하루에 50리터 이상 쓰지 말자는 운동이다. 번기도 물을 반만 쓰게 고쳐 봤고 수도물도 조금 나오다가 자동으로 멎는다.

이곳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를 가나 물이 귀하다. 식당이나 호텔에서 술 값을 받듯이 물 값을 따로 받는다. 앞으로의 세상은 물을 구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흔하게 쓰는 물이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고 우리는 축복받은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Shack Township. 일종의 slum지역이다. 대개 공항근처에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한다. 왜 공항근처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입국하는 사람들이 이 shack 부터 보게 마련이다.

도시 건물들이 대개 흰색이나 회색인데 어느 한 지역에 가니 찬란한 5색으로 칠한 집들이 있었다. 이곳은 Bo-Kaap이라는 곳인데 다양한 외래 인종들이 사는 곳이다. 본래는 모두 하얀색 집이었는데 백인 정부가 물러나고 인종차별 정책이 종식되자 이들은 기꺼이 집에 있는 아무 페인트나 들고 나와 자기 집에 칠해서 인종화합을 과시 했다. 이제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Bo-Kaap지역의 다채로운 인종들을 그려 놓은 벽화. 백인 정부시절 인종을 White, Black, Colored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백인은 대개 네델란드인이었고, 흑인은 코사족(Xhosa) 이었다. Nelson Mandela나 Desmond Tutu 도 코사족이다. Colored 는 네델란드령 인도네시아 (자바섬 등)에서 데려온 노예, 인도, 말레이시아, 동남아, 중국, 이란등지에서 흘러들어온 막노동자 유민들

을 통틀어 일컬었으며 이 인종집단을 Cape Malays 라고도 불렀다. 이들은 Bo-Kaap 지역에 몰려 살았으며 이 지역이 Signal Hill에 있다.



Table Mountain은 Cape Town의 Trade Mark 같은 곳이다. 산꼭대기가 평평한게 꼭 식탁처럼 생겼다. Table Mountain은 UNESCO가 새로 지정한 7대 Wonder of Nature 중의 하나이다. 제주도의 성산일출봉도 그중 하나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케이블카가 회전하여 360도를 돌며 다 볼 수 있었다. 케이블카 승차장에 제주도 사진도 있어 선전이 많이 될 것같이 보였다.

Table Mountain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앞에 산이 보이는데 마치 사자가 엮드려 있는 형상이다. Lion Head는 Devil's mask 라고도 하며 사자의 엉덩이는 Signal Hill인데 옛날에 매일 정오가 되면 대포를 쏘았다고 한다.

사자 머리 위 저 너머로 바다에 보이는 섬은 Robben Island 인데 이곳에는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무시무시한 일급 형무소가 있다. Nelson Mandela는 27년 형무소 생활 중 18년(1964-1982)을 이곳의 독방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만델라의 위대한 점은 인종 해방 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를 박해했던 백인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너그러이 사면을 해주어 국가의 통합을 이루었다는 데 있다. 도넛 같이 둥그란 모양의 건축물은 FIFA 축구 경기장이다.

산꼭대기에는 1800 종의 Fynbos라는 이곳 고유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산꼭대기는 식탁처럼 평평하고 매우 넓다. 1,067m x 1085m의 넓은 평지이다. 이 산은 모두 사암(沙岩)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옛날에는 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 남미가 한 덩어리였는데 그것이 갈라지면서 바다 밑이 솟아올라 이 산을 형성했다고 한다.

산허리를 돌며 반이 열린 Half tunnel 을 지나가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 보이는데 이곳은 Cape Town에서 가장 부자 동네라고 한다. 이곳에는 말 타고 산책하는 아름다운 해안도 있다.



희망봉 (Cape of Good Hope)은 사실 희망곶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한다. Cape of Good Hope(희망봉)에서 2.3 Km 동쪽에는 Cape Point가 있는데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이라 한다. 이곳의 Two Ocean Restaurant에서 양대양(兩大洋)에서 잡은 해산물 요리를 먹었다.

식사 후 Tram을 타고 등대가 있는 산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다.

본 등대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 멀리서도 보여 배들이 희망봉에 도달한 줄 알고 뱃머리를 너무 일찍 돌려 앞초에 좌초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흐린 날은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산허리에 조그만 등대를 새로 세우고 요즘은 이 작은 등대만 사용하고 본 등대는 쓰지 않는다고 한다.

## 빙하수(氷河水)를 마시면서 바라는 것은

서윤석(68, 버지니아)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빙하가 녹아내리며 만들어낸 대지의 운명과도 같다  
기본 언어(言語)와 인지력(認知力)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빙하가 지나간 땅에 수목이 우거지고 생명들이 번창하며 살다가  
산불이 붙어 덩불에 섞여 다 타버리는 것과도 같다

수은, 납, 아말로이드 플렉 같은 불순물이 쌓이고  
순조로운 신진대사가 차단되어 뇌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은  
단풍이 물들고 오곡이 추수되던 마을에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물살에 떠내려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빙하가 녹아내려 아름다운 폭포수와 강을 이루고  
그 물살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넓고 비옥한 초원(草原)에서  
목동이 피리를 불고 소와 양이 사이 좋게 풀을 뜯을 수 있었던  
이 소중한 시간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슬픈 현상과도 같다

뇌로 가는 혈관에 적혈구의 운송이 막히고 마그네슘, 징크, 테스토스테론, 프로세스테론, 콜레스테롤, 갑상선 기능의 발란스가 기울고  
독소가 되어버린 당분의 대사체가 뇌의 기능을 빼앗아가는 치매(Alzheimer's Disease)  
이 슬픈 현상을 막으려고 햇볕에 녹아 졸졸 흐르는 차디찬 빙하수를  
우리는 이렇게 컵에 떠서 나누어 마시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늦게나마 이해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자연을 보존하고 공기를 다시 맑게 하고자 머리를 조아리며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하고 탄산가스, 독가스의 방출을 줄여서  
수십만 년 간직하던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o)의 젊음을 다시 찾자 함이다

그래서 밤하늘에 총총하게 떠있던 별들의 이름도 다시 찾고  
겨울 속의 얼굴도 다시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젊은 날의 기억,  
이 소중한 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영하 20도의 로키산정(the Rockies)에서 빙하수를 나누어 마시며  
장갑 낀 손을 서로 잡고 차디찬 얼음 위를 걸어보는 것이다

\* 환경 오염에 따른 많은 질병의 발생과 유전에 중요한 세포의 핵(노른자) 밖의 세포질(흰자) 속에 있는 에너지의 발전소

### 왜 이 글을 썼는가

기억을 잃어가는 불쌍한 치매 환자분들과 인간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지구가 아주 그 처지가 비슷합니다. 두 공통점을 연결하여 하나의 글로 써 보았습니다. 그 문제점의 원인, 예방, 해결책에 대하여 공부하고 느낀바를 쓴 글입니다. 공해, 방사능 등, 환경 오염의 변화는 생명들의 세포에 변화를 일으키며 질병도 야기합니다.

대기의 오염과 온난화에 의하여 점점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서 저는 눈물과 같은 빙하수를 마시면서 후세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 것,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를 받는 것, 둘 다 똑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명의 이기로 그 혜택을 현재 만끽하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에서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서양의 물은 blue색이 나고 인도양의 물은 green색이 난다. 두 물이 섞이는 곳에 손을 담고 사진을 찍었다.

해안을 따라 인도양을 바라보며 열마를 가니 Boulders 라는 곳이 나왔다. 이곳은 펭귄 서식지이다. 아프리카에 펭귄이 있는 줄 몰랐다. 펭귄은 남반구(Southern Hemisphere)에만 있다고 한다. 펭귄을 북극에 갖다 놓고 북극곰을 남극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다음날 아침 물개 섬을 구경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조그만 섬에 도착하니 물개들로 거의 덮이다시피 되어 있었다. 물개(Seal)는 앞발이 길고 귀구멍이 크다. 바다표범(Sea Lion)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발이 짧고 귀구멍이 작다고 한다.

물개 섬을 구경하고 Winery를 방문했다. 남아공 포도주가 유명하다고 한다. 포도밭이 끝도 없다. 시음장에서 다섯 가지 시음했는데 아리까리해졌다. 이곳 포도주를 Pinotage라고 하는

데 Pinot Noir와 Hermitage를 짝퐁한 것이라고 한다.

Cape Town 선창가(Marina)에는 명품 Shopping Center가 있고 여러 가지 오락시설들이 있다. 이곳에서는 재즈 음악을 하는 그룹도 있고 왈츠지결하다. Husband Day Care Center라는 간판이 있어 웃었다. 여자들이 사랑하는 동안 남편을 맡겨 두는 곳인데 음식 값과 술 값만 내면 남편을 잘 돌보아 준다고 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여자들은 남편하고 같이 사랑하면 귀찮은가 보다.

Marina에는 각종 Sea Food Restaurant 이 있다. Lobster, 새우, 생선 등을 긴 꼬챙이에 꽂아 구어 서브한다. 음악도 있었다. 어둠이 내리자 Marina의 밤은 낭만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침이면 Africa를 떠난다. 내 생전에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탐험하는 심정으로 온 아프리카가 이제는 떠나기가 아쉽게 느껴진다.

P.S. 사진을 더 보고 싶으시면 www.snuma.net 에 들어가 보십시오.



전후에 이어서 그리스 신 중 잘 알려진 신들 몇 명만 더 소개하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포세이돈 (Poseidon/Neptune)**



크로노스와 레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출산하자마자 크로노스에 삼켜졌다고 훗날 제우스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다. 일설에 의하면 모친 레아가 양들의 무리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양 새끼 망아지를 크로노스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의 유모 아르네(Arne)는 크로노스가 그를 찾으러 왔을 때 시치미를 떼었다고 한다. 디오도로스 시켈로스(Diodorus Siculus)에 의하면 포세이돈은 텔키네스(Telchines)에 의하여 양육되었다.

메두사(Medusa)가 괴물로 변하기 전에 포세이돈의 처로 있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Perseus)가 그녀를 살해했을 때 포세이돈이 날개달린 말 페가소스(Pegasus)와 병사들인 크리사오르(Chrysaor)를 창조하였다.

포세이돈의 끈질긴 구혼에 지친 암피트리테(Amphitrite)는 도망쳐버려 그는 델피노(Delphinus)에게 구애하여 결혼에 성공한다. 그래서 그녀를 돌핀(Dolphin)으로 만든다.

다른 신들과 같이 그는 슬하에 자식들을 수십 명을 두었다. 그중 데메테르(Demeter)와의 사이에 페르시폰(Persephone)도 포함되었다는 설이 있다. 데메테르가 그의 구애에 지쳤을 때 그는 그녀를 암말로 만들어 날개달린 말 아리온(Arion)을 출산하였다. 그리고 같은 행각으로 테오파네(Theophane)를 암말로 만들어 숫 양과 접붙여 금털의 양(Golden-fleeced ram)인 크리소말론(Chrysoallon)을 만들었다. 이 금털의 양이 프리코스(Phrixus)에 의하여 콜치스(Colchis)에 가게 되는데 이후의 이야기를 이아손(Iason/Jason)에서 나온다.

그는 거인과 신의 전쟁 때 거인 폴리부테스(Polybutes)를 살해하였고, 펠롭스(Pelops)의 몸이 재생되었을 때 그를 자기 애인으로 올림포스에 운반해왔다. 그리고 펠롭스가 히포다미아(Hippodamia)에게 구혼할 때 자기의 신비의 마차를 빌려주었다. 그리고 같은 마차를 이다스(Idas)가 마르페사(Marpessa)를 유괴할 때 빌려주었다.

호메로스의 시에 의하면 포세이돈이 아테네의 관할권을 여신 아테나에게 양도하였지만 그는 그리스의 전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플라토(Plato)에 의하면 포세이돈이 선택한 영역은 아틀란타 섬이다.

그는 미노스(Minos)의 처 파시페(Pasiphae)가 흰 소와 사랑에 빠져 괴물 미노타우어(Minotaur)를 출산케 한다. 그가 반역죄로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 왕 라오메돈(Laomedon)의 종으로 전락하였는데 같은 이유로 전락된 아폴로(Apollo)와 더불어 트로이의 성곽을 짓는 사역에 종사하게 된다. 그런데 왕이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포세이돈은 바다 괴물을 매년 그 땅에 올려 보내어 썩대밭을 만들자 왕은 왕녀를 희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때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서 바다괴물을 죽이고 그 왕녀 헤시온(Hesion)을 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나중에 포세이돈은 트로이가 포위당했을 때 그리스 편에 서게 된다.

그는 말을 인류에게 처음으로 선사한 신으로 추대 받고 있으며 그의 궁궐은 바다 속에도 있지만 드물게는 올림포스 산에서도 기거하기도 하였다. 그는 바다의 신으로 지진도 관할한다. 델로스(Delos) 섬을 지진으로 불워

로 울려 떨어기도 하였다. 이 불모의 섬에 야자수 한 구루만 서 있는데 여기에서 훗날 아폴로와 아르테미스가 태어난다. 레토(Leto)가 제우스의 애기를 배었다는 소문을 들은 헤라는 심술을 내어 레토를 육지에서 추방한다. 레토는 쫓겨 다니다 못해 델로스 섬에 겨우 피신하여 그 야자수의 그늘 밑에서 분만의 신 일리티아(Ilithyia)의 도움으로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한수웅 (61, 필라델피아)

먼저 낳고 음악의 신 아폴로를 낳는다. 그들은 쌍둥이다. 제우스는 어여쁜 쌍둥이를 무척 귀여워하여 델로스 섬을 바다 밑으로 연결하여 초목과 화초가 무성하게 자라게하여 순교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성전들이 들어서게 된다.

**아폴로 (Apollo, Apollon)**



태양과 빛, 심지어는 질병(흑사병)의 신으로 알려졌다.

제우스와 사촌 레토(Leto) 사이에 생겨 애기의 분만을 완강히 금지한 헤라의 명령 때문에 아폴로는 그리스 본토에서 떨어진 델로스(Delos) 섬에서 쌍둥이 누이 아르테미스와 함께 태어났다. 호메로스에 의하면 그의 출생지가 오르티기아(Ortygia) 섬으로 기록되어 있고, 카빌마코스에 의하면 파키마디아(Paximadia) 섬으로 기술되어 있다. 아폴로가 처음 분만되었는지 혹은 아르테미스가 먼저였는지 이설이 많으나 대다수의 저자들은 아르테미스가 먼저 출생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아르테미스가 하루 먼저 오르티기아 섬에서 출생하고 레토가 델로스 섬에 가서 하루 후에 아폴로가 출생하였는데 그때 아르테미스가 그의 분만을 도와주었다고도 한다.

생후 4일 만에 아폴로는 델피의 카스탈리(Castali) 샘에서 서식하던 무시운 뱀 피톤(Python)을 죽여 버린다. 그 뱀은 레토를 죽이기 위하여 그곳에 보내진 것인데 아폴로는 헤파에스토스에게 간청하여 활과 화살을 얻어 그 뱀을 델피에 있는 신성한 굴에서 사살하였다. 그리고 헤라는 티티오스(Tityos)를 보내서 레토를 강간하게 하는데 이때 그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제우스가 티티오스를 타르타로스(Tartarus)로 내쫓아버려 그의 간을 두마리의 독수리가 쪼아 먹게 한다.

그의 애인인 젊은 사냥꾼 키파리시스(Cypris)가 실수로 아폴로가 아끼는 수사슴을 죽인다. 그 사슴의 주검을 비통하다 못해 그 젊은 사냥꾼을 키프레스(Cypress) 섬으로 만들어 버린다.

제우스가 죽은 히포리토스(Hypolytus)를 부활시킨 이유로 자기 아들 아스클레피우스(Asclepius)를 처형한다. 아폴로는 그 처사를 보복하는 의미에서 키클롭스(Cyclops) 삼형제를 모두 물살시킨다. 그래서 제우스는 아폴로를 라오메돈(Laomedon) 왕의 노예로 전락시켜 트로이의 성곽을 짓는 사역에 종사하여 포세이돈을 돕게 한다. 또 다른 설은 이 죄로 아폴로는 테살리의 아드메스토스(Admetus) 왕에게

1년 동안 중노동하는 형을 받는다. 아폴로는 왕의 양치기로 일하면서 왕이 펠리아스(Pelias) 왕의 공주를 얻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위하여 일찌기 죽어주면 그 만큼 왕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주선해 준다. 그런데 왕의 부모가 그 약속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여왕 알체스티스(Alcestis)가 왕을 위하여 자진해서 죽는다. 이에 헤라클레스가 죽음의 신 타나토스

(Thanatos)를 설득하여 여왕을 다시 살려 보내 준다.

음악경연대회에 나가서 판(Pan)과 경합하는데 미다스(Midas)가 판을 승자로 판정한다. 그래서 아폴로는 판에게 나귀의 귀를 달아준다. 다음 음악경연에서 숲의 신 마르시아(Marsyas)와 경쟁하여 아폴로가 우승한다. 이런 음악덕분에 트로이의 성곽을 짓는 일이 한결 수월했다고 한다.

그는 아르테미스의 도움으로 모친 레토(Leto)를 강간하려던 거인 티티우스(Tityus)를 살해한다.

트로이아 전쟁때 아가멤논이 아폴로의 승려 크리세스(Chryses)의 딸 크리세이스(Chryseis)를 생포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아폴로는 흑사병균이 묻은 화살을 그리스 부대에 날린다. 결국 아폴로의 강력한 요청으로 그녀를 돌려보낸다. 이 처사에 아킬레스가 노발대발한다. (일리아드).

디오메데스(Diomedes)에게서 상처받은 아이네아스(Aeneas)를 아폴로가 구출한다. 처음에는 아프로디테가 아이네아스를 구출하려다가 그녀마저 상처받는다. 이때 아폴로가 아이네아스를 구름으로 덮어버리고 페르가모스(Pergamos)에 피신시킨다. 아이네아스는 훗날 로마의 건국시조로 추대받는 인물이다.

아폴로는 파리스를 도와 아킬레스의 족건(足腱)을 명중시키도록 화살을 유도한다. 아폴로의 아들 트로일로스(Troilus)를 자기 신전에서 살해한 신성 모독죄로 아킬레스를 살해하게 된 것이다.

테베(Thebes)의 암피온(Amphion) 왕국의 여왕 니오베(Niobe)가 아들 일곱명과 딸 일곱명이 있어 레토(Leto)보다 실력이 있다고 뽐내고 다닌다. 이에 아폴로는 그 아들들을, 아르테미스는 그 딸들을 살해하고 몇 명만 남겨놓는다. 암피온이 죽은 자식들을 보자 자살한다. 일설에는 보복을 맹세했다가 아폴로에게 살해당한다.

오비드의 '변형'에 의하면 아폴로가 큐피드(Cupid)와 살 놀이를 하던 도중 큐피드가 쓴 금화살에 맞는다. 그와 동시에 요정 다프네가 아연으로 만든 화살에 맞아 아폴로를 멀리하고 도망치면서 자기 부친에 천신(天神) 페네우스(Peneus)에게 도움을 구한다. 그래서 아폴로는 그녀를 월계수로 만든다. 그래서 델피의 아폴로신전에 여승들이 월계수 잎사귀로 만든 월계관을 승자에게 수여하게 된다.

아폴로가 사랑하는 마르페사(Marpessa)가 이다스(Idas)에게 유괴되고 만다. 제우스는 그녀에게 한쪽을 선택하라고 한다. 그녀는 아폴로가 영생하기 때문에 그녀가 늙으면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다스를 택한다.

헤쿠바(Hecuba)는 트로이의 왕 프리암(Priam)의 왕후인데 아폴로와 관계하여 아들 트로일로스(Troilus)를 낳게 된다. 그래서 어느 신탁은 그 늙이 20세에 달할 때까지 트로이아는 패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던 그가 그날 북병당해 아킬레스에게 살해당한다.

트로이아의 프리암(Priam) 왕의 딸 카산드라(Cassandra)를 사랑한 아폴로는 그녀를 유혹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한다. 그런데 그녀가 그의 사랑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녀에게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주어도 다만 비극적인 예언만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 않는다.

플레기아스(Phlegyas) 왕의 딸 코로니스(Coronis)가 아들 아스클레피우스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이스키스(Ischys)와 사랑하고 있었다. 이 비밀을 안 검은 까마귀가 아폴로에게 귀띔한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폴로는 이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전까지는 흰색을 하고 있던 까마귀를 전부 검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그것이 사실을 안 후에는 아르테미스를 보내서 코로니스를 살해하고 까마귀를 성조(聖鳥)로 만들고 중요한 부고를 발표하는 일을 맡긴다. 아폴로는 그 아기를 구원해서 키론(Chiron)에게 보육시켜 의사로 만든다. 딸을 잃은 라피트(Lapiths)의 왕 플레기아스는 그 보복으로 델피에 있는 아폴로 성전을 불태워 버린다. 그리고 아폴로에게 죽음을 당한다.

아폴로의 신전은 그리스와 로마의 여러 군데 건축되어 고대 건축양식의 시대적 지역적 변천을 연구하는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아테나 (Athena/Minerva)**



아테나는 지혜, 기지 및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졌다. 로마 신화에서는 미네르바(Minerva)라고 불렀다. 아테나는 어원학적으로 그리스의 아테네와 연관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는 오디시우스, 이아손(Iason)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들의 보호여신으로 알려졌다. 동정녀 아테나(Athena Parthenos)로 추앙받았다. 비록 전술의 여신으로 알려졌지만 정당성 없는 전쟁을 피하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제우스는 여신 메티스(Metis)의 자식들이 자기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임신 중에 메티스를 삼켜버린다. 얼마 있다가 제우스는 심한 두통을 느낀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용사가 제우스의 두골을 열어 보니 완전히 성숙하고 무장한 아테나가 튀어 나왔다. 이에 불만을 품은 헤라는 단독으로 헤파에스토스(Hephaestus)를 분만하였다고 많은 전승이 전하지만, 또 다른 설에 의하면 헤라는 아테나의 출생을 환영하여 자기 자신의 딸처럼 기뻐하였다고 한다.

아크로폴리스(Acropolis) 언덕에 있는 성전 파르테논(Parthenon)의 이름이 동정녀(Parthenos)에서 유래하였으며 아테나는 가장 정숙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여성으로 아테네시의 보호신으로 추앙되어 왔다. 그녀는 애인 혹은 동거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헤파에스토스(Hephaestus)는 아테나를 강간하려 들었는데 그녀가 교묘하게 피하는 틈에 그의 정자가 땅에 떨어져 에리토노스(Erichthonius)가 땅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테나는 보모로서 그 애기를 키웠다. 아테나는 에리토노스를 작은 상자에 넣어 아테네의 세 자매 헤르세(Herse), 판드로소스(Pandrosus) 및 아글라울로스(Aglauus)에게 맡기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열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런데 호기심에 찬 헤르세와 아글라울로스가 상자를 열어 그 속에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있는 새끼 뱀을 보고 환장하여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떨어져 죽는다.

얼마 오래지 않은 전승에 의하면, 메두사(Medusa)가 아름다운 여성으로 아테나의 성전으로 와서 여승으로 일하는데 포세이돈이 그녀에게 혹해서 정숙을 서약한 그녀를 신성한 아테나 성전에서 강간하려 들었다. 이를 알아챈 아테나는 그녀를 벌하여 그의 언니들처럼 머리카락이 뱀으로 된 고르곤(Gorgon)으로 변형시키고 그녀의 하체도 두개의 뱀으로 변체시켜 그녀를 보는 사람은 모두 돌로 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신화는 티레시아스(Tiresias)가 목욕하고 있는 아테나를 엿보다가 눈이 멀어져서 맹인이 되었다. 그래서 시력은 없지만 새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아테나는 아테네 시의 보호신으로 되기를 위하여 포세이돈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두 신이 아테네 시민들이 원하는 선물을 제시할 것에 합의한다. 포세이돈이 그의 유명한 삼지창을 땅에 박으니 소금물이 샘에서 솟아 나온다. 이것으로 시민에게 교역의 수단과 물을 공급한다는 뜻이었다. 당시 아테네는 살라미스(Salamis)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패배시킬 정도로 제해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물이 짜서 음료수로는 쓸 수 없다. 그러나 아테나는 시민들에게 올리브 나무를 선물로 제시한다. 그랬더니 아테네의 왕 케크롭스(Cecrops)와 시민들이 올리브 나무를 더 선호한다.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 기름, 식품 및 나무까지 제공하니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테나가 아테네의 보호여신으로 뽑힌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보면 오딧시우스가 고국인 이타카(Itaca)로 항해하다가 풍파에 밀려 작은 섬에 도착했을 때에 변장한 아테나가 찾아와서 그의 처 페넬로페(Penelope)가 낭군이 죽은 줄 알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때 오딧시우스가 순간적으로 재치 있게 맞장을 친다. 이에 크게 인상받은 아테네가 그를 늙은 거지로 변장시켜 수많은 구혼자들을 처리해 버리게 한다. 그리고 아테나는 오딧시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Telemachus)를 멀리 여행시켜 부친의 소식을 듣게 하면서 부친의 왕권을 계승하도록 준비시켜 준다.

펠레우스(Peleus)와 테티스(Thetis)의 결혼식에 많은 신과 여신과 유지들이 초청 받는다.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이혼의 여신 에리스(Eris)가 금사과를 여신들에 던져 제일 예쁜 여신이 차지하게 한다. 결국 헤라,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경쟁하게 된다. 그래서 제우스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심판관으로 임명한다. 세 여신이 차례로 옷을 벗고 심사를 받는다. 심판관 눈에는 셋이 똑같이 아름다워 판정이 어려워진다. 그러자 여신들은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다. 헤라는 아세아와 유럽 전 대륙을, 아테나는 지혜와 영광과 승리를,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나와서는 그의 귀에 소곤거린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인 헬레나(Helena)를 배필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헬레나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와 결혼하고 있는 상태이다. 파리스는 필사코 헤레나를 트로이로 유괴하고만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에 의하면 유명한 염색전문가의 딸 아라크네(Arachne)는 자기가 아테나보다 훨씬 뜨개질을 잘한다고 뽐내고 다닌다. 그래서 늙은 노파로 변장한 아테나가 그녀를 좋게 타이른다. 그러나 그녀는 고집을 부리면서 뜨개질 대회를 하여 자기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우긴다. 그래서 아테나는 아테네 보호권 경쟁때

포세이돈을 물리친 장면을 짜고, 아크네는 제우스의 성행각을 일일이 보여주는 장면을 짰는데 너무나 빈틈없이 완벽하였다. 이 신성모독에 노발한 아테나는 그 작품을 찢어버리고 자기 지팡이로 아라크네를 쳐서 거미로 만들어 버린다.

아테나는 아테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다른 도시의 보호신으로 추앙받았다. 특히 스파르타와 그 인근에 있는 만티네이아(Mantineia)와 티게아(Tegea)에 아테나를 기리는 성지 혹은 성전이 있다. 특히 스파르타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에 아테나 칼키오이스(Athena Kalkioios)라고 불리우는 거창한 성전이 있어 대단히 엄숙한 예식이 거행된다.

**아프로디테 (Aphrodite/Venus)와 헤파이스토스 (Hephaestus)**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 행락과 번식의 여신이다.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렀고 또한 천문학에서는 금성으로 지칭 받고 있다.

헤시오드의 '신통기'에 의하면 크로노스(Cronos)가 우라노스(Uranos)의 남근을 잘라 바다에 던졌을 때 그 물거품에서 여신이 태어 났다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은 제우스와 디오네(Dione)의 딸이라고 하고, 플라토(Plato)는 천성(天性) 아프로디테(Aphrodite Ourania)와 세속적인 아프로디테(Aphrodite Pandenos)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프로디테의 출생지가 키테라(Cythera)란 섬과 키프로스(Cyprus)라는 섬이 있어 이 두 지역에서 여신의 축제가 열리곤 한다.

성장한 아프로디테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신들의 사랑 싸움을 염려한 제우스는 아프로디테를 헤파이스토스(Hephaestus)와 결혼시킨다. 헤파이스토스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난 대장간과 불의 신으로 대단히 몸집이 크고 재주있는 장인(匠人)이다. 그는 모친 헤라를 더 좋아하여 부모가 다룰 때는 으레 어머니편을 들었다. 그것이 못마땅하여 제우스는 그의 다리를 잡고 올림포스 산 밖으로 던지니 렘노스(Lemnos) 섬에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된 그를 온순한 바다여신 테티스(Thetis)가 간호와 치료하여 다시 올림포스로 돌려보낸다.

그는 금과 은으로 로발(Robot) 두 개 조작하여 그들을 써서 신들이 앓을 의자 12개를 금으로 만들고, 신들의 무기, 마차, 보석들을 만들고 키클롭스의 도움을 얻어 화산을 조형하기도 한다. 그의 망치소리는 대단히 요란하여 몇 십리 밖에서도 들릴 정도이다. 모든 신들이 그의 용접술에 경탄하고 그를 칭찬하였다. 가끔 아프로디테가 그의 대장간에 들려서 그가 만든 보석들을 자랑하곤 한다.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혼외 정사가 워낙 많았다. 그녀는 미라(Myrrha)의 아들 아도니스(Adonis)를 대단히 사랑하였다. 그런데 사냥을 좋아하던 아도니스가 꿈에게 죽음을 당하자 그의 핏방울이 떨어진 곳에 아네모네(anemone)가 자라게 하고 그의 기일을 지켰다.

아르고 원정대에 속했던 부테스(Butes)가 요정들의 노래에 유혹되어 배에서 이탈하여 바다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아프로디테는 그를 건져 주고 그와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거

기서 아들 에릭스(Eryx)를 얻는다. 대단히 섬기가 급하기로 유명한 전쟁의 신 아레스(Ares)와 사랑을 나누다가 남편의 그물에 잡혀서 망신한 적도 있지만, 아레스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식을 낳고, 포사이돈과 사이에서 로도스(Rhodos), 헤르메스와 사이에서 양성체(兩性體, Hermaphroditos)를 낳고, 아도니스와의 사이에서도 두 자식을 갖는 등 많은 자식들을 슬하에 둔다.

아프로디테의 질투심이 여간 아니어서, 아르테미스(Artemis)를 자기보다 선호한다는 이유로 히포리토스(Hippolytus)를 사망으로 유도하고, 죄 없는 파에드라(Phaedra)까지 자살로 유도한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하다.

황금사과 이야기는 헤라와 아테나 편에서 이미 설명되었다. 아프로디테는 그때 판결을 중재하게 된 파리스에게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애처 헬레나(Helena)를 뇌물로 주는 조건으로 판정승을 얻는다. 이것이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다. 또한, 아프로디테는 트로이의 안키세스(Anchises)를 사랑하여 훗날 로마를 건국하게 되는 아이네아스(Aeneas)를 아들로 둔다. 그러므로 로마의 시인들은 아프로디테를 비너스(Venus)라고 부르고 대단히 숭배하였다.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 만들고 인간에게 불을 제공하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지식의 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티탄 이아페토스(Iapetus)와 바다의 요정 클루메네(Clymene)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틀라스(Atlas)와 동물을 만들어 세상에 퍼뜨렸던 에피메티우스(Epimetheus)를 동생으로 두고 있다. '신통기'에서 헤시오드는 그를 제우스보다 한 단계 낮은 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포스 신전에서 불씨를 훔쳐 인간에게 준 죄로 제우스는 그를 카우카소스(Caucasus)의 바위에 묶어 그의 간을 독수리가 매일 쪼아 먹는 벌을 준다. 그의 간은 밤에 재생하였지만 독수리가 계속 그를 해치고 있었다. 여러 해 후에 헤라클레스가 그 독수리를 죽여 버리고 그를 쇠사슬에서 풀어준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사 드리는 음식을 두 가지로 만들었다. 한쪽은 살코기를 위장으로 싸서 놓고, 다른 쪽은 소의 뼈와 내장을 보기 좋게 기름을 발라 놓았다. 제우스는 그 후자를 택한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인간이 살코기를 차지하고 타다 남은 뼈를 기름에 싸서 신에게 제사 드리게 된다. 이에 불만을 품고 제우스는 불을 다시 빼앗아가고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불을 찾아왔다는 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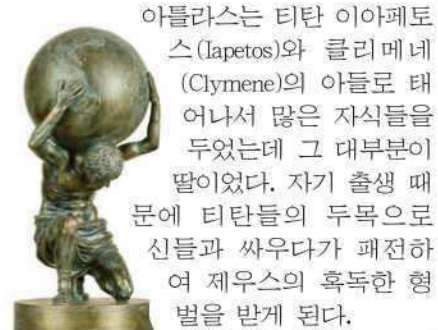
아이스쿨로스(Aeschylus)의 각본 '묵인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bound)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 즉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준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문화를 개발하는 수단 즉 글쓰기, 수학, 농사법, 의학 및 과학을 가르쳐 주었고 제우스는 인간을 멸종시키려 하였고, 제우스형제가 티탄과 대결할 때 프로메테우스가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제우스를 도왔는데 바위에 영생 묶이는 벌은 너무 가혹하여 프로메테우스의 반발이 더 커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바다 요정 테티스(Thetis)와 결혼하지 말라고 제우스에게 경고한다. 그녀가 결국 펠레우스

(Peleus)와 결혼하여 아킬레스를 낳는다. 아킬레스는 자기 부친을 능가하는 장수로 성장한다. 아킬레스의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나온다.

프로메테우스는 어원학적으로 선각(先覺)으로 해석하고 그의 동생 에피메티우스는 후각(後覺)으로 설명하고,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의 독재에 대항하는 인간의 자주정신의 발상의 요소로 서양문학과 예술에 반영되어, 프랑스혁명과 예수교의 정신으로 발전하였다고 석학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케테, 셸리(Shelley), 바이론(Byron) 및 카프카(Kafka)의 시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아틀라스 (Atlas)**



아틀라스는 티탄 이아페토스(Iapetus)와 클리메네(Clymene)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자식들을 두었는데 그 대부분이 딸이었다. 자기 출생 때문에 티탄들의 두목으로 신들과 싸우다가 패전하여 제우스의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된다.

젊은 제우스가 자기 형제자매들을 거둬내게 만들고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우주를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에 티탄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반발하고 나선다. 그런데 이 '신들과의 전쟁'(Titanomachia)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티우스는 제우스 편에 서고 아틀라스와 메노에티우스(Menoetius)는 티탄 편에서 서로 싸운다. 티탄이 패배한 후 제우스는 메노에티우스를 타르타로스(Tartarus) 감옥에 보내고 아틀라스를 지구의 서쪽 끝에 세우고 하늘을 어깨에 짊어지는 형벌을 준다. 그래서 그는 천축(天軸)으로 작용하여 하늘을 그 주위에 돌게 만든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가지를 치고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헤라클레스의 넷째 사역에서 헤라의 과수원에서 금사과를 얻어오는 일인데 이 과수원은 아틀라스의 딸 헤스페리데스(Hesperides)가 관리하고 라돈(Ladon)이라는 용이 수비하고 있는데, 이때 아틀라스는 자기가 금사과를 갖고 돌아올 때까지 잠깐 동안만 하늘을 떠바치고 있으라고 헤라클레스에게 말한다. 금 사과를 갖고 온 아틀라스가 금사과를 직접 에리스(Eris)에게 갖다 주겠다고 속이려 하자 그것을 눈치 챈 헤라클레스는 "내가 어깨에 패드를 놓을테니 잠깐만 교대하자"고 말하면서 그 목중한 천축을 아틀라스에게 넘기고 금사과를 갖고 급히 떠나버린다.

페르세우스(Perseus)가 산속에서 길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아틀라스는 전혀 진절을 베풀지 않고 그를 쫓아 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주어 아틀라스를 돌로 변하게 한다. 제우스의 아들 하나가 자기의 과수원에서 금사과를 훔쳐 간다는 예언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세우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아틀라스는 그를 적대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또 다른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와의 관계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낳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페르세우스의 증손격이 된다.

이외에도 여러 신들이 있고 또한 많은 영웅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면관계로 여기서 '그리스 신화의 허상과 실상'을 일단 끝내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지난호(2018년 1월 20일 발행) 1면 신년사중 흥중용을 흥정용으로, 15면 72년 졸업동문 정회연을 정회현으로 바로 잡습니다.



# 2017~2018 한승신 회기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 1948 한용현
- 1951 김동수 이상하
- 1953 강수상 이상봉
- 1955 노용면 박병원
- 1956 김신현 김윤태 서상철 박상기 도상탁 주창준
- 1957 김용진 김일훈 서영환 이동성 임종식 임종원 정진복
-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김수산 김순옥 김윤범 김학륜 김해암 문석면 박용화 박호연 배영섭 송세엽 신상균 류치열 유영호 이만택 이동목 이상문 이상설 이윤수 이종국 이종용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병석 김은섭 김용덕 김한섭 나길진 방석운 박용순 반용근 방덕환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교락 이종수 임낙중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최혜숙 한달수 한성업
- 1960 권기홍 김영환 김인환 김택경 김홍석 박명근 박병돈 박정웅 박춘명 박형순 염극용 오신중 이광준 이경화 이상일 이종석 임필순 이덕승 전희근 조재동 한성수
- 1961 강창욱 곽동린 고의걸 김성준 김영철 김예홍 김유홍 김화섭 계훈택 박승균 박장생 박준환 서희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재승 이준우 이한수 이희경 이희백 장성환 정두현 정철용 조은순 진창건 최공창 최성덕 최용성 최태순 하상태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 1962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문상규 민경환 박종건 박진수 박찬형 송영두 유충국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상원 이석우 이영욱 이용길 장항순 정정수
- 1963 강영호 고영희 노인규 김갑중 김계윤 김명준 김승태 김정일 김주용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현철 김현화 마동일 문성길 박세록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윤영섭 이기환 이범세 이병준 이승현 이수인 이흥빈 왕규현 윤영욱 윤진수 이종두 장세곤 진병학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한광수 한기현 선우건영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진우 김태환 라찬국 박세준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오유섭 오수환 양운택 유광현 유창남 윤흥기 이정필 이종성 이종오 이주영 이정은 이홍표 임병훈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차응만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선우세현
- 1965 권태해 구경희 김길중 김덕진 김욱현 박수안 서좌일 신백효 이광선 이범석 이정희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규 정길화 조성규 지영환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최영인 한재은 황규정 홍수웅
- 1966 김경세 김은한 김의신 김우신 김종원 김진수 김진호 김종규 민발식 이명희 이성근 이영일 장한교 정량수 조관상 조규용 조의열 최순재 최영자 한동수 한일성 허서룡
- 1967 강명식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영균 이진수 이소희 이정화 이태안 최무웅 한영수
- 1968 고남규 노영일 김경인 김명원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희주 김 철 문광재 박정식 서윤석 송창호 신용계 안극환 안세현 유우영 이건일 이상훈 임공세 정재성 주광국 차재철 최 철 황훈규 홍광신
- 1969 도상철 김병오\*김중권 김윤성 김창남 박수웅 서 량 송용재 신영찬 안병일 엄규동 오선웅 육순재 윤효윤 이승공 이흥호 임용규 정한규 최종진
- 1970 김형달 박찬진 박홍식 방준재 송요준 여준주 오석일 유종현 장극기 장현식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규 강창홍 강태수 광승용 고기영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 훈 김창구 김효순 노재홍 박동수 박상효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온기철 이성길 이원택 이종일 장 철 정인용 조세진 하준영 황동하 홍성진 최수강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박찬호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인영걸 정균희 정희현 조경호 최인섭
- 1973 고용규 김정용 나두섭 문대옥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오인환 이계석 임준형 조재종
- 1974 구재훈 권철수 김웅진 유영준 임자은
- 1975 박종희 박인영 김원정 김자역 배영훈 전경배 조절영

- 1976 김대중 김정아 유영걸 한승신
- 1977 강준희 김동훈 박일우 박정식
- 1979 이승호
- 1981 남명호 이선희
- 1983 전원일
- 1985 박정미
- 1991 강민중
- 1999 박종철 이도은 임경빈
- 2001 김태곤 장세권 정영태
- 2008 김혜리 박영수 이익재
- 2011 김유리 김민형
- 1980 박남훈
- 1982 차민영
- 1984 서귀숙 정희국
- 1989 이선규
- 1994 신태수 안상훈
- 2000 강현석 황필규
- 2002 최태웅
- 2009 송경민 양현식

— 는 2회 이상 납부하신 분 \* VA

### 35th CONVENTION DONATION

- 김윤범(58) 100 문석면(58) 250 신상균(58) 1025 최창송(58) 1500 한성업(59) 100
- 권기홍(60) 500 한성수(60) 50 강창욱(61) 100 박승균(61) 150 한수웅(61) 175
- 한혜원(61) 100 황현상(61) 100 고희호(62) 100 김석식(62) 75 송영두(62) 200
- 정정수(62) 300 권영조(63) 1000 조한원(63) 1000 한기현(63) 200 권정덕(64) 500
- 이홍표(64) 200 허선행(64) 500 이명희(66) 1000 서윤석(68) 500 이건일(68) 100
- 차재철(68) 100 윤효윤(69) 100 이승공(69) 100 강창홍(71) 200 김성환(71) 1000
- 김유식(71) 200 김일영(71) 500 온기철(71) 1000 이원택(71) 75 박찬호(72) 100
- 오용호(72) 200 문대옥(73) 300 오인환(72) 300 서인석(73) 500 박종희(75) 175
- 조철영(75) 1000 김대중(76) 1000 김정아(76) 5000 유영걸(76) 300 한승신(76) 5000
- 최광휘(76) 1000 박일우(77) 1000 남명호(81) 1000 이선규(89) 100 김유리(01) 50
- 서울대학병원 1000

### GREEN PROJECT FUND

- 김은섭(59) 200 이종석(60) 75 이용길(62) 200 김태형(63) 75 김진우(64) 175
- 이홍표(64) 200 허선행(64) 100 민발식(66) 100 김병오(69)\*200 이승공(69) 100
- 온기철(71) 500 오용호(72) 100 서인석(73) 100 박인영(75) 200 김정아(76) 300
- 한승신(76) 300 박남훈(80) 175 남명호(81) 500 서귀숙(84) 150 이선규(89) 100
- 강민중(91) 100 이도은(99) 100 임경빈(99) 50 장세권(01) 1000 김유리(01) 100
- 정영태(01) 50 최태웅(02) 100 양현식(09) 100 김민형(11) 100
- 서울대학병원 1000

### CHARITY FUND

- 최창송(58) 3000 최태순(61) 25 이상복(62) 200 조한원(63) 75 신두식(64) 100
- 허선행(64) 100 홍선경(64) 100 채도경(65) 25 최영자(66) 200 이승공(69) 100
- 김웅진(74) 100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김동훈(77) 300 차민영(82) 100

### SCHOLARSHIP FUND

- 김신형(56) 100 김학륜(58) 100 김은섭(59) 200 권기홍(60) 500 이덕송(60) 200
- 한성수(60) 100 황현상(61) 100 김한중(62) 200 김현화(63) 100 한기현(63) 125
- 이홍표(64) 200 허선행(64) 100 박수안(65) 75 김진호(66) 50 이영균(67) 100
- 서윤석(68) 500 유우영(68) 200 이승공(69) 100 김효순(71) 125 박동수(71) 300
- 배성호(71) 300 서정자(71) 375 최수강(71) 100 김웅진(74) 100 김자역(75) 500
- 정경화(76) 5000

### GENERAL DONATION

- 강수상(53) 100 노용면(55) 200 서상철(56) 150 임종식(57) 500 김석희(58) 100
- 김윤범(58) 100 강상진(59) 200 한성업(59) 50 최종진(59) 225 김택경(60) 25
- 이경화(60) 200 정의철(61) 500 김한중(62) 200 김명준(63) 75 김현철(63) 75
- 박세록(63) 50 이수인(63) 100 이흥빈(63) 200 진병학(63) 50 한광수(63) 225
- 김태환(64) 50 신두식(64) 100 양운택(64) 100 이홍표(64) 275 임병훈(64) 100
- 최준희(64) 175 임현재(65) 50 정길화(65) 100 장한교(66) 50 정량수(66) 75
- 강명식(67) 75 김성철(67) 75 안세현(68) 100 이상훈(68) 75 차재철(68) 75
- 최준영(68) 325 황훈규(68) 75 박수웅(69) 150 윤효윤(69) 100 이승공(69) 100
- 정한규(69) 50 김형달(70) 100 박찬진(70) 75 방준재(70) 500 광승용(71) 300
- 김유식(71) 150 오동환(71) 100 정균희(72) 100 나두섭(73) 200 유영준(74) 50
- 김원정(75) 200 전경배(75) 50 박남훈(80) 50 남명호(81) 50 이도은(99) 100
- 박혜성(06) 200

작고하신 동문들의 부인들인 Mrs. 정의철(61) \$500, 최경은 (Mrs. 최준영, 68)께서 \$325을 General Fund, Mrs. 정경화(76)께서 \$5,000을 Scholarship Fund로 보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1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자랑스런 Mentor 상 제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에서 자랑스런 Mentor 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이 미국내에서 전문인으로서 자리를 자리매김 하기까지는 미국내 의과대학 졸업생들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동문 mentor는 미국내에서 전문의로서의 성공 뿐 아니라 본인 및 가족들의 미국내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며, 나아가서 미주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Mentoring은 많은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동문들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깊은 애정없이 쉽게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닌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에서는 동문(들)에게 소중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흔쾌히 제공하셔서 동문들의 미국내 진로개척과 정착을 성공적으로

로 이끌어 주신 자랑스런 Mentor를 찾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공로를 기리고자 합니다. 자랑스런 Mentor상 후보의 자격 중에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이 아니신 분도 추천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셔도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문(들)의 개인적인 발전과 전문인으로서 성공을 위해 개인적인 상담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동문(들)을 학술 및 전문 커뮤니티에 추천하거나 소개
- 동문(들)에게 자신의 학술 연구 활동에 합류하거나, 연구결과를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의로서의 성장에 도움을 제공
- 동문(들)에게 행정적, 전문적 지원을 제공
- 동문(들)에게 귀감이 됨 -Mentoring 에 대한지속적인 헌신

- 추천 방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회원인 주추천자 (1인) 및 재청자 (1인) 의 추천서 (소정양식)를 동창회 사무실에 이메일 (SNUCMAA@yahoo.com) 로 제출
- 추천기간:** 2018년 5월 28일까지
- 심 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자랑스런 Mentor상 심사위원회
- 발표 및 수여:** 2018년 6월 23일 제35차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